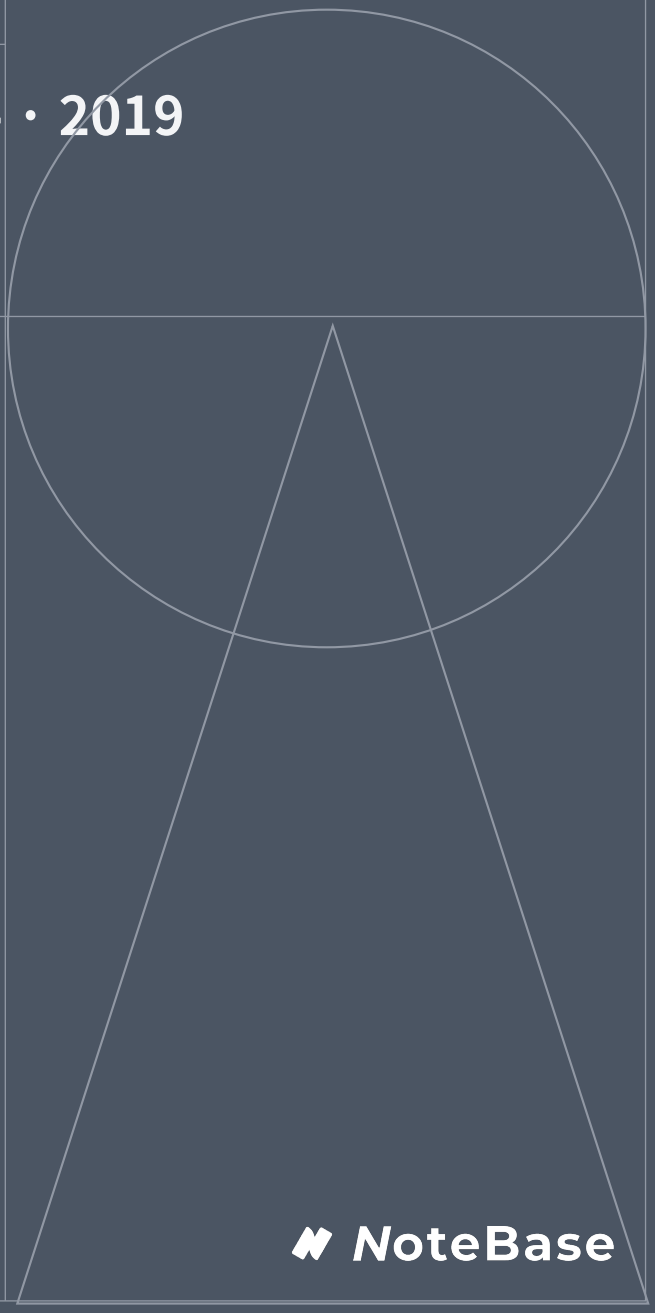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9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9

문 1. 상품매매업을 하는 (주)세무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가 ₩8,000,000일 때, 조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조 구분	종목 구분	장부 수량	실제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I	상품A	150개	140개	₩1,000	₩900
	상품B	180개	180개	500	450
II	상품C	200개	190개	750	650
	상품D	430개	400개	1,200	1,300

① ₩7,958,000

② ₩7,981,000

③ ₩8,000,000

④ ₩8,040,000

⑤ ₩8,043,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종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의 재고자산평가손실 차이를 계산하여 매출원가의 변동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종목별 저가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8,000,000원이다.
기말재고는 실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조별기준 평가손실이 종목별기준 평가손실보다 감소하면
매출원가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평가단위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L = \max(C - N, 0)$이다. 여기서 C는 원가, N은 순실현가능가치이다. 조별 저가법은 같은 조에 속한 상품들의 원가 합계와 순실현가능가치 합계를 비교한다. 조 안에서 원가 대비 순실현가능가치 부족액과 초과액이 서로 상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종목별 평가손실을 계산한다.
상품 A: 140개 × (1,000원 - 900원) = 14,000원
상품 B: 180개 × (500원 - 450원) = 9,000원
상품 C: 190개 × (750원 - 650원) = 19,000원
상품 D는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300원이 단위당 원가 1,200원보다 높으므로 평가손실이 없다.
따라서 종목별 평가손실은 14,000원 + 9,000원 + 19,000원 = 42,000원이다.

2. 조별 평가손실을 계산한다.
Ⅰ조 원가: 140개 × 1,000원 + 180개 × 500원 = 230,000원
Ⅰ조 순실현가능가치: 140개 × 900원 + 180개 × 450원 = 207,000원
Ⅰ조 평가손실: 230,000원 - 207,000원 = 23,000원
Ⅱ조 원가: 190개 × 750원 + 400개 × 1,200원 = 622,500원
Ⅱ조 순실현가능가치: 190개 × 650원 + 400개 × 1,300원 = 643,500원
Ⅱ조는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므로 평가손실이 없다. 따라서 조별 평가손실은 23,000원이다.

3. 조별기준 평가손실은 종목별기준보다 42,000원 - 23,000원 = 19,000원 감소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도 19,000원 감소하여 8,000,000원 - 19,000원 = 7,981,000원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 7,958,000원은 종목별 평가손실 42,000원을 주어진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한 금액이다. 주어진 8,000,000원에는 이미 종목별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평가손실 차이 19,000원만 차감한 7,981,000원이다.
② O — 조별기준 평가손실이 종목별기준보다 19,000원 감소하므로 매출원가는 7,981,000원이다.
③ X — 8,000,000원은 두 평가방법의 손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에서 19,000원을 차감한 7,981,000원이다.
④ X — 8,040,000원은 조별기준을 적용하면 평가손실과 매출원가가 감소한다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올바른 변동은 40,000원 증가가 아니라 19,000원 감소이므로 7,981,000원이다.
⑤ X — 8,043,000원은 조별기준을 적용하면 평가손실과 매출원가가 감소한다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올바른 변동은 43,000원 증가가 아니라 19,000원 감소이므로 7,981,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어진 8,000,000원은 종목별 저가법의 평가손실이 이미 포함된 매출원가이다. 종목별 평가손실 42,000원을 다시 빼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손실 42,000원과 조별 손실 23,000원의 차이인 19,000원만 조정해야 한다. 또한 Ⅱ조에서는 상품 C의 원가 대비 순실현가능가치 부족액이 상품 D의 원가 대비 순실현가능가치 초과액과 조 안에서 상계되어 조 전체의 평가손실이 0원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수량으로 각 종목의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종목별 평가손실과 조별 평가손실을 각각 구하고, 두 손실의 차이만 기존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평가손실이 줄면 매출원가도 줄고 기말재고자산은 늘어난다.

암기 포인트

저가법의 평가단위가 넓어지면 같은 평가단위 안의 원가 대비 순실현가능가치 부족액과 초과액이 상계되어 평가손실이 감소할 수 있다. 평가손실 감소액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한다.

NoteBase

문 2. (주)세무는 20x1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인 제품 100개를 개당 ₩2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세무는 판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반품률은 5%로 추정되며, 반품제품 회수비용, 반품제품 가치하락 및 판매당일 반품은 없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x1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이다.

② 20x1년 인식할 이익은 ₩4,750이다.

③ '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x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750이다.

④ 동 거래의 거래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20x1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 예상 반품분을 제외한 수익, 환불부채, 반환제품 회수권 자산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수량은 100개, 개당 판매가격은 200원, 개당 원가는 150원, 예상 반품률은 5%이다. 따라서 판매대금은 20,000원이고 예상 반품수량은 5개이다. 회수비용과 반환제품의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회수권 자산은 예상 반품제품의 종전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사용할 공식

수익=총 판매대금×(1-예상 반품률)
환불부채=총 판매대금×예상 반품률
회수권 자산=판매제품 원가×예상 반품률
매출원가=판매제품 원가-회수권 자산
반품권 때문에 기업이 최종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가 달라지므로 예상 반품분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동시에 반환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 판매대금은 100개 × 200원 = 20,000원이다.
2. 예상 반품액은 20,000원 × 5% = 1,000원이므로 수익은 20,000원 - 1,000원 = 19,000원이고 환불부채는 1,000원이다.
3. 판매제품의 총원가는 100개 × 150원 = 15,000원이다. 예상 반품제품의 원가는 15,000원 × 5% = 750원이므로 회수권 자산은 750원, 매출원가는 15,000원 - 750원 = 14,250원이다.
4. 이익은 19,000원 - 14,250원 = 4,75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예상 반품액 1,000원을 총 판매대금 20,000원에서 차감하므로 20x1년 매출액은 19,000원이다.
② O. 수익 19,000원에서 매출원가 14,250원을 차감한 이익은 4,750원이다.
③ O. 반환제품 회수권 자산은 예상 반품수량 5개의 원가인 750원이다. 회수비용과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추가 차감도 없다.
④ O. 반품권으로 받을 대가가 변동하므로 예상 반품을 반영하여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X. '부채는 250원'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가격 1,000원을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250원은 예상 반품 5개에 포함된 판매이익인 5개 × (200원 - 150원)일 뿐 환불부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환불부채와 예상 반품분의 이익을 혼동하기 쉽다. 환불부채는 고객에게 돌려줄 판매가격 기준인 1,000원이고, 250원은 예상 반품분의 판매가격과 원가 차이일 뿐이다. 또한 회수권 자산 750원을 환불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품권부 판매는 판매가격 기준으로 '예상 비반품분 수익'과 '예상 반품분 환불부채'를 나누고, 원가 기준으로 '예상 비반품분 매출원가'와 '예상 반품분 회수권 자산'을 나누어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판매가격의 반품분은 환불부채, 원가의 반품분은 회수권 자산이다.

NoteBase

문 3.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 ₩8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이며,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의 113.24%를 지급한다.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1년	0.8929	0.8929
2년	0.7972	1.6901
3년	0.7118	2.4018

① 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② 20x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③ 20x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④ 20x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20x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최초 측정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장부금액의 변동과 자본요소의 회계처리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표시이자 지급액은 매년 6,000원이고 만기상환액은 113,240원이다. 부채요소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며, 자본요소는 발행대금 100,000원에서 최초 부채요소를 뺀 잔액이다. 최초 인식한 자본요소는 이후 재측정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은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이다. 이후 부채 증가액은 기초 부채 장부금액× 12\%-표시이자 지급액이다. 이는 전환권이 없는 동일 조건의 일반사채 수익률로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부채요소: $6,000 \times 2.4018 + 113,240 \times 0.7118 = 95,015.032$이므로 95,015원이다.
2. 최초 자본요소: $100,000 - 95,015 = 4,985$원이므로 이후에도 4,985원이다.
3. 20x1년 말 부채: $95,015 \times 12\% - 6,000 = 5,402$원이 증가하여 100,417원이 된다.
4. 20x2년 부채 증가액: $100,417 \times 12\% - 6,000 = 6,050$원이고, 20x2년 말 장부금액은 106,467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이자 6,000원의 3년 연금현재가치와 만기상환액 113,240원의 현재가치를 합하면 최초 부채요소는 95,015원이다.
② O. 자본요소 4,985원은 최초 인식 후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20x1년 12월 31일에도 4,985원이다.
③ O. 20x2년 유효이자비용은 100,417원의 12%인 12,050원이고 현금이자 6,000원을 지급하므로 부채는 6,050원 증가한다.
④ O. 액면 40,000원은 전체 액면 100,000원의 40%이므로 관련 전환권대가는 $4,985 \times 40\% = 1,994$원이다. 전환 시 이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X. 20x3년 1월 1일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106,467원이므로 100,000원에 전부 상환할 때 사채상환이익은 $106,467 - 100,000 = 6,467$원이다. '11,452원'은 부채요소의 차액 6,467원에 자본요소 4,985원까지 더한 잘못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사채상환이익이 6,467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제거한 총차액을 손익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사채상환손익은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상환대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이미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대가는 상환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만기상환액까지 포함하여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발행대금과의 차이를 자본요소로 분리한다. 그다음 부채만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전환 또는 상환 시에는 해당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는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증가, 자본은 재측정하지 않음, 상환손익에는 자본요소를 섞지 않음'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3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x3년 1월 1일 현재 잔존내용연수 4년)되고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를 20x4년 1월 1일에 현금을 수령하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손실은 ₩6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령한 현금은 얼마인가?

① ₩190,000

② ₩480,000

③ ₩540,000

④ ₩580,000

⑤ ₩7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후속원가를 장부금액에 가산한 뒤 변경된 잔존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처분손실을 이용하여 처분대금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1월 1일 취득원가는 1,000,000원이고 최초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0원,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20x3년 1월 1일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500,000원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그 시점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원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된다.
20x4년 1월 1일 처분 시 처분손실은 6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 내용연수이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금액× 해당 연도 상각률이고, 잔존내용연수가 4년이면 첫해 상각률은 $4/(4+3+2+1) = 4/10$이다.
처분손실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처분대금이므로, 처분대금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처분손실이다.
후속원가 지출 이후의 새로운 추정과 감가상각방법은 변경 시점 이후에 적용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과 20x2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매년 $1,000,000 \div 4 = 250,000$원이므로, 20x3년 1월 1일 후속원가 지출 직전 장부금액은 $1,000,000 - 250,000 \times 2 = 500,000$원이다.
2. 후속원가 500,000원을 가산한 장부금액은 $500,000 + 500,000 = 1,000,000$원이다.
3. 새로운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0 - 100,000 = 900,000$원이고, 20x3년 감가상각비는 $900,000 \times 4/10 = 360,000$원이다.
4. 20x4년 1월 1일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1,000,000 - 360,000 = 640,000$원이다.
5. 처분대금은 $640,000 - 60,000 = 58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0,000원은 계산된 처분대금 580,000원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580,000원이다.
② X — 480,000원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 640,000원에서 처분손실 6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80,000원이다.
③ X — 540,000원은 계산된 처분대금 580,000원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580,000원이다.
④ O — 처분 직전 장부금액 640,000원에서 처분손실 60,000원을 차감하면 현금 수령액은 580,000원이다.
⑤ X — 700,000원은 처분손실 60,000원이 발생하는 처분대금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80,000원이며, 700,000원을 받으면 장부금액 640,000원보다 60,000원 많아 처분이익 60,000원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후속원가 500,000원은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또한 잔존가치 100,00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차감하며,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처분대금은 장부금액보다 작아야 한다. 특히 ⑤는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경 직전 장부금액을 구하고, 자본화되는 후속원가를 가산한 뒤, 변경된 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으로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손익 관계식에서 처분대금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후속원가 자본화 → 새 조건으로 전진 적용 → 처분손실이면 처분대금은 장부금액보다 작다.

NoteBase

문 5.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주)세무	(주)한국
취득원가	₩500,000	₩350,000
감가상각누계액	220,000	20,000
공정가치	270,000	300,000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한국이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90,000이다.

③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다.

④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에서 취득원가의 측정 기준과 처분손익을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세무의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500,000원 - 220,000원 = 28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270,000원이다.
(주)한국의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350,000원 - 20,000원 = 33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300,000원이다.
(주)세무는 현금 20,000원을 지급하고 (주)한국은 이를 수취한다.

사용할 공식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두 공정가치 중 수취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에 지급한 현금을 더하거나 수취한 현금을 빼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취득원가=제공자산의 공정가치+지급현금-수취현금
처분손익=제공자산의 공정가치-제공자산의 장부금액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상업적 실질이 있고 양쪽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경우, (주)세무의 취득원가는 270,000원 + 20,000원 = 290,000원이고 (주)한국의 취득원가는 300,000원 - 20,000원 = 280,000원이다.
2. (주)세무의 처분손익은 270,000원 - 280,000원 = -10,000원이므로 10,000원의 손실이다.
3. (주)한국의 처분손익은 300,000원 - 330,000원 = -30,000원이므로 30,000원의 손실이다.

선지 판단

① X — (주)세무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270,000원에 지급현금 20,000원을 더한 290,000원이다. '300,000원'은 수취자산의 공정가치를 곧바로 사용한 값이며, 올바르게는 '290,000원'이다.
② X — (주)한국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00,000원에서 수취현금 20,000원을 뺀 280,000원이다. '290,000원'이 아니라 '280,000원'이다.
③ X — (주)세무가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수취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00,000원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280,000원'은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한 값이며, 올바르게는 '300,000원'이다.
④ X —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양 회사 모두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가 아니라 '양 회사 모두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옳다.
⑤ O — 상업적 실질이 있고 양쪽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면 (주)세무는 10,000원, (주)한국은 30,000원의 처분손실을 각각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수취자산의 공정가치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에 현금을 가감한 금액을 혼동하게 만든다. ③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다'는 조건에서 장부금액으로 바로 넘어가는 함정이다. 수취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업적 실질과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에 현금을 가감하여 취득원가를 구하고,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측정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상업적 실질 있음은 공정가치 측정과 처분손익 인식, 상업적 실질 없음은 장부금액 측정과 처분손익 미인식으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x1년 초 토지와 영업용 건물을 각각 ₩100,000과 ₩1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x2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2,000을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유형자산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거래가 (주)세무의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	토지	건물
20×1년 말	₩95,000	₩7,000
20×2년 말	120,000	6,500

① ₩2,000 증가

② ₩2,500 증가

③ ₩4,500 증가

④ ₩22,000 증가

⑤ ₩22,5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의 환입액과 당기 감가상각비를 함께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말 토지는 장부금액 100,000원에서 공정가치 95,000원으로 하락하므로 재평가손실 5,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건물은 20×1년 감가상각비 2,500원을 반영한 장부금액이 7,500원이고, 공정가치 7,000원까지의 하락액 5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2년 초 건물의 후속원가 2,000원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재평가된 건물 7,000원과 후속원가 2,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 토지 공정가치는 120,000원이고 건물 공정가치는 6,500원이다.

사용할 공식

20×2년 감가상각비 = (7,000원 + 2,000원) ÷ 3년 = 3,000원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당기손익으로 환입되는 재평가이익 - 감가상각비
재평가이익은 먼저 동일 자산에 관하여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의 범위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되고, 그 초과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토지: 20×2년 말 재평가이익은 120,000원 - 95,000원 = 25,000원이다. 이 중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실 5,000원만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 2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건물: 20×2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7,000원 + 2,000원 - 3,000원 = 6,000원이다. 공정가치 6,500원으로 재평가하면서 생기는 이익 500원은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 500원을 환입하는 것이므로 전액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3. 당기순이익 영향은 재평가이익 5,000원 + 500원 - 감가상각비 3,000원 = 2,500원 증가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자산 제거 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이 계산에 추가적인 당기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2,000원 증가가 아니라 2,500원 증가이다. 토지의 손실 환입 5,000원뿐 아니라 건물의 손실 환입 500원도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감가상각비 3,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② O.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재평가이익 5,500원에서 감가상각비 3,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500원 증가한다.
③ X. 4,500원 증가가 아니라 2,500원 증가이다. 20×2년 건물 감가상각비는 3,000원이며, 재평가이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5,500원뿐이다.
④ X. 22,000원 증가가 아니라 2,500원 증가이다. 토지 재평가이익 중 과거 손실 5,000원을 초과하는 2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이므로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X. 22,500원 증가가 아니라 2,500원 증가이다. 토지의 재평가잉여금 20,000원을 당기손익에 합산해서는 안 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20×2년 토지 재평가이익 25,000원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토지 재평가손실 5,000원까지만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초과액 2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건물 후속원가 2,000원은 즉시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한 뒤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별로 전기 재평가손실의 당기손익 인식액을 먼저 확인하고, 당기 재평가이익 중 그 손실을 되돌리는 범위만 당기손익에 넣는다. 이후 자본화된 후속원가를 포함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당기순이익 영향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이익은 과거 당기손익상 손실의 환입분까지만 당기손익이고, 초과분은 기타포괄손익이다. 자본화한 후속원가는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NoteBase

문 7. 20x1년 1월 1일 (주)세무는 제품 200개를 고객에게 1년에 걸쳐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동일한 제품 10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추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동 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200개 가운데 3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추가 제품의 계약금액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20x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 58개와 추가 계약 수량 중 50개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식할 총수익은?

① ₩100,000

② ₩100,800

③ ₩118,000

④ ₩128,000

⑤ ₩13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계약변경으로 추가된 재화가 구별되지만 추가 계약금액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총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경 전 이전한 제품: 30개, 개당 ₩1,000
변경일 현재 기존 계약의 잔여 제품: 170개
추가 제품: 100개, 총 계약금액 ₩80,000
변경 후 6월 30일까지 이전한 제품: 기존분 58개 + 추가분 50개 = 108개
주의할 조건: 추가 제품은 구별되지만 추가 계약금액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변경 후 잔여 제품의 단위당 수익은 다음과 같다.

$$\frac{170 \times 1{,}000 + 100 \times 800}{170 + 100} = \frac{250{,}000}{270}$$

변경 후 수익은 이 재산정 단가에 변경 후 이전한 제품 수를 곱한다. 이는 미이행 부분을 기존 계약의 종료와 새 계약의 체결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계약변경 전에 이전한 30개의 수익은 30 × ₩1,000 = ₩30,000이다.
2. 변경일 현재 잔여 대가는 170 × ₩1,000 + 100 × ₩800 = ₩250,000이고, 잔여 제품은 270개이다.
3. 변경 후 이전한 108개의 수익은 250,000/270 × 108 = ₩100,000이다.
4.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총수익은 ₩30,000 + ₩100,000 = ₩1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0은 계약변경 후 이전한 108개에서 인식할 수익만 계산한 금액이다. 변경 전에 이전한 30개의 수익 ₩30,000을 더해야 하므로 올바른 총수익은 ₩130,000이다.
② X — ₩100,800은 변경 전 수익과 변경 후 전진적 배분액을 합산한 결과가 아니다. 변경 후 수익은 정확히 ₩100,000이고 변경 전 수익 ₩30,000을 합치면 ₩130,000이다.
③ X — ₩118,000은 변경 전 30개와 변경 후 이전한 108개 전체에 대한 올바른 수익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잔여 대가 ₩250,000을 잔여 270개에 재배분하면 총수익은 ₩130,000이다.
④ X — ₩128,000은 변경 전 30개와 기존분 58개를 각각 ₩1,000, 추가분 50개를 각각 ₩800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계약변경 후에는 기존분과 추가분을 구분해 원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대가를 잔여 제품 전체에 재배분하므로 ₩130,000이 된다.
⑤ O — 변경 전 수익 ₩30,000과 변경 후 수익 ₩100,000의 합계인 ₩130,000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변경 전 인식한 ₩30,000을 빠뜨리는 함정이고, ④는 변경 후에도 기존분은 ₩1,000, 추가분은 ₩800으로 따로 계산하는 함정이다. 추가 대가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변경 후 잔여 제품 270개에는 재산정한 하나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변경 문제는 먼저 추가 재화가 구별되는지, 다음으로 추가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지를 판단한다. 구별되지만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변경일의 미인식 대가와 추가 대가를 잔여 재화 전체에 재배분하고, 변경 전 인식액과 변경 후 인식액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구별되는 재화 + 개별 판매가격 미반영 = 별도 계약이 아니라 잔여분에 대한 전진적 재배분이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제품을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x1년 6월 30일 이전에 (주)한국이 요구할 경우 (주)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20x1년 6월 30일까지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x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가치는 ₩210,000 미만이다.)

①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②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③ 20x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④ 20x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⑤ 20x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풋옵션의 재매입가격이 최초 판매가격 이상이고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을 때 해당 재매입약정을 금융약정으로 처리하며,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할 때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최초 판매가격은 200,000원이고 재매입가격은 210,000원이다. 재매입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높고 재매입일의 예상 시장가치도 초과하며, 고객에게는 풋옵션을 행사할 유의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다. 따라서 최초 거래는 제품 판매가 아니라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 이후 풋옵션은 20x1년 6월 30일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하였다.

핵심 개념

금융약정으로 보는 재매입약정에서는 판매자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받은 금액과 재매입 시 지급할 금액의 차이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면 그때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적용 기준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제품을 계속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받은 현금 200,000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6개월 동안 금융부채는 이자비용 10,000원만큼 증가하여 210,000원이 된다. 옵션 소멸일에는 이 금융부채 210,000원을 제거하면서 같은 금액의 매출액을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금융약정에서는 제품의 통제가 (주)한국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O — (주)한국이 지급한 200,000원은 제품 취득원가가 아니라 (주)세무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인식된다.
③ O — (주)세무는 받은 현금 200,000원을 최초 판매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제품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O — 최초 수령액 200,000원과 재매입가격 210,000원의 차이 10,000원은 금융약정의 이자이므로, (주)세무는 옵션 만료일까지 이자비용 10,000원을 인식한다.
⑤ X — '매출액 200,000원'이 틀린 표현이다. 옵션 소멸 직전 금융부채는 최초 금액 200,000원에 이자비용 10,000원이 더해진 210,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20x1년 6월 30일 금융부채 210,000원을 제거하고 매출액 210,000원을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옵션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고 최초 거래를 곧바로 일반 판매로 처리하거나, 옵션 소멸 시 최초 현금수령액 200,000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최초에는 계약 체결 시점의 경제적 유인을 기준으로 금융약정을 판정하고, 소멸일에는 이자가 가산된 금융부채 장부금액 210,000원을 수익으로 대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풋옵션 재매입가격을 최초 판매가격 및 예상 시장가치와 먼저 비교한다. 재매입가격이 최초 판매가격 이상이고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으면 금융약정으로 분류한 뒤, '자산 계속 인식 → 받은 대가만큼 금융부채 인식 → 차액은 이자 → 옵션 소멸 시 부채 제거와 수익 인식'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높은 가격의 풋옵션은 금융약정이며, 200,000원 부채에 10,000원 이자를 더한 뒤 소멸 시 210,000원을 매출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9. 20x1년 4월 1일 (주)세무는 다음의 영업용 건물을 ₩5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의 감가상각 및 처분이 (주)세무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 취득원가: ₩2,000,000
◯ 취득 시 정부보조금 수령액: ₩450,000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25%)
◯ 잔존가치: ₩200,000
◯ 20x1년 1월 1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말평가: 원가모형

① ₩150,000 감소
② ₩187,500 감소
③ ₩227,500 감소
④ ₩250,000 증가
⑤ ₩262,5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한 경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와 보조금수익뿐 아니라 건물 처분손실과 남은 이연수익의 일시 인식까지 모두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2,000,000원, 잔존가치는 200,000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00원이다. 20x1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2,000,000원-1,200,000원=800,000원이다. 4월 1일 처분이므로 당기 감가상각기간은 3개월이다. 정부보조금 450,000원은 감가상각과 같은 비율로 보조금수익에 인식하고, 처분 시 남은 이연수익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정률법 감가상각비:
기초 장부금액 × 상각률 × 사용월수12
누적 보조금수익:
정부보조금 × 누적감가상각액감가상각대상금액
당기순이익 영향:
보조금수익 + 남은 이연수익 -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 처분 시 미인식 잔액을 더 이상 이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는 800,000원×25%×3/12=50,000원이다. 처분 직전 건물 장부금액은 800,000원-50,000원=750,000원이다.
2. 20x1년 1월 1일까지 인식한 보조금수익은 450,000원×1,200,000원/1,800,000원=300,000원이므로 기초 이연수익은 150,000원이다.
3. 당기 보조금수익은 450,000원×50,000원/1,800,000원=12,500원이고, 처분 직전 남은 이연수익은 150,000원-12,500원=137,500원이다.
4. 건물 처분손실은 750,000원-500,000원=250,000원이다.
5.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0원+12,500원-250,000원+137,500원=-15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50,00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 감가상각비, 당기 보조금수익, 처분손실 및 남은 이연수익을 모두 합산하면 당기순이익이 150,000원 감소하므로 옳다.
② X — '187,500원 감소'는 네 요소를 모두 반영한 순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50,000원 감소'이다.
③ X — '227,500원 감소'는 처분 시 남은 이연수익 137,500원을 포함한 최종 순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150,000원 감소'이다.
④ X — '250,000원 증가'는 건물 처분손실 250,000원만을 반대 부호로 표시한 것이며 보조금 관련 수익과 감가상각비도 누락한다. 올바르게는 '150,000원 감소'이다.
⑤ X — '262,500원 증가'는 방향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당기 보조금수익 12,500원과 남은 이연수익 137,500원은 이익 증가요인이지만, 감가상각비 50,000원과 처분손실 250,000원이 더 크므로 올바르게는 '150,000원 감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처분대금 500,000원과 처분 직전 장부금액 750,000원만 비교하면 처분손실 250,000원만 보게 된다. 그러나 이 문항은 '감가상각 및 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묻고 있으므로 당기 감가상각비 50,000원, 당기 보조금수익 12,500원, 처분손실 250,000원, 남은 이연수익 137,500원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관련 자산의 중도 처분 문제는 '처분일까지 감가상각 → 같은 비율의 보조금수익 → 처분손익 → 남은 이연수익 환입' 순서로 계산하고, 비용·손실은 음수, 수익·이익은 양수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 자산 처분 시 당기 상각분만 보지 않고 남은 이연수익까지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1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x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x1년 초와 20x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20x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x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20×0년 12월 31일	20×1년 12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	120	132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259	0.9091
2년	0.8573	0.8264
3년	0.7938	0.7513

① ₩5,527

② ₩5,727

③ ₩5,778

④ ₩7,727

⑤ ₩7,77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증가분을 리스부채에 반영할 때, 재측정 대상과 할인율 및 지급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기초자산A: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 지급한다. 20x1년 수익은 200,000원이므로 산술상 변동리스료는 2,000원이지만, 매출·사용량에 연동되는 금액은 리스부채 측정에서 제외한다.
기초자산B: 2회차 리스료부터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다. 지수는 120에서 132로 10% 상승했으므로 남은 각 리스료는 30,000원에서 33,000원으로 3,000원씩 증가한다.
할인율: 지수 변동에 따른 재측정에는 변경된 10%가 아니라 최초 측정에 사용한 8%를 계속 적용한다.
지급 시점: 20x1년 말 현재 2회차 증가분은 즉시 지급되고, 3회차 증가분은 1년 뒤 지급된다.

사용할 공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132/120 - 1 = 10\%$이다.
각 회차의 리스료 증가분은 $30{,}000 \times 10\% = 3{,}000$원이다.
리스부채 증가액은 $3{,}000 + 3{,}000 \times 0.9259$로 계산한다. 첫 증가분은 즉시 지급되므로 할인하지 않고, 1년 뒤 증가분만 8%의 1년 현가계수 0.9259를 곱한다.

계산 과정

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32/120 - 1 = 0.10$
2. 2회차와 3회차의 회당 증가분: $30{,}000 \times 0.10 = 3{,}000$원
3. 20x1년 말 리스부채 증가액: $3{,}000 + 3{,}000 \times 0.9259 = 5{,}777.7$원
4.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5,778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527원은 즉시 지급할 2회차 증가분과 1년 뒤 지급할 3회차 증가분을 최초 할인율 8%로 측정한 값이 아니다. 5,527원 → 올바르게는 5,778원이다.
② X — 5,727원은 변경된 증분차입이자율 10%의 1년 현가계수 0.9091을 적용한 $3{,}000 + 3{,}000 \times 0.9091$의 반올림값이다. 지수 변동에 따른 재측정에는 최초 할인율 8%를 적용하므로 5,727원 → 5,778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3{,}000 + 3{,}000 \times 0.9259 = 5{,}777.7$원이므로 반올림한 5,778원이 맞다.
④ X — 7,727원은 10% 할인율로 계산한 5,727원에 기초자산A의 수익 연동액 2,000원을 더한 값이다. 수익 연동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에서 제외하고 8%를 적용하므로 7,727원 → 5,778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7,778원은 기초자산B의 올바른 증가액 5,778원에 기초자산A의 수익 연동액 2,000원을 잘못 포함한 값이다. 수익 연동액을 제외하므로 7,778원 → 5,778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기초자산A의 수익 연동액 2,000원을 리스부채에 포함하는 것과, 20x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 10%로 할인하는 것이다. 지수 연동 리스료는 지수가 변할 때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지만, 매출·사용량 연동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에서 제외하며 지수 변동 재측정에는 최초 할인율을 사용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리스료의 기준을 먼저 구분한다. 지수·요율 연동이면 리스부채에 반영하고, 매출·사용량 연동이면 리스부채에서 제외한다. 그다음 지수 변동 재측정에는 최초 할인율을 적용하고, 재측정일에 즉시 지급할 금액은 할인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지수 연동은 부채 재측정, 매출 연동은 부채 제외, 지수 변동 재측정 할인율은 최초 할인율이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20x1년 10월 1일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1,200,000을 선급하고 전액 20x1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오류는 20x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되어 수정되었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20x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매 기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모든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 증가한다.

② 당기 비용이 ₩700,000 발생한다.

③ 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 증가한다.

④ 기말 자산항목이 ₩400,000 증가한다.

⑤ 기말 순자산이 ₩300,000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요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할 때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 비용, 기말 선급보험료 및 기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보험기간은 20x1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인 36개월이다. 20x1년 귀속 보험료는 3개월분이고, 20x2년 귀속 보험료는 12개월분이며, 20x2년 말의 미경과기간은 21개월이다. 20x1년에 1,200,000원 전액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실제 20x1년 비용을 초과한 금액만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사용할 공식

월 보험료 = 1,200,000원 ÷ 36개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액 = 20x1년 말 미경과보험료
20x2년 당기 비용 = 월 보험료 ×12개월
20x2년 말 자산 및 순자산 수정액 = 월 보험료 ×21개월
보험료가 매 기간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총보험료를 전체 보험기간에 월할하여 각 연도의 비용과 미경과보험료를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월 보험료는 1,200,000원 ÷ 36개월 = 33,333.33…원이다.
2. 20x1년의 정당한 비용은 3개월분인 100,000원이다. 전액 비용 처리로 비용을 1,100,000원 과대계상했으므로 20x2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1,100,000원 증가시킨다.
3. 20x2년의 정당한 당기 비용은 12개월분인 400,000원이다.
4. 20x2년 말에는 총 36개월 중 15개월이 경과했으므로 21개월분인 700,000원이 선급보험료로 남는다.
5. 수정 전과 비교하면 기말 자산과 기말 순자산은 각각 700,000원 증가하고, 기말 이익잉여금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 1,100,000원에서 당기 비용 400,000원을 차감한 700,000원만큼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O. 20x1년 말 미경과보험료 1,100,000원을 전기에 비용으로 과대계상했으므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원 증가한다.
② X. '당기 비용이 700,000원 발생한다'가 틀렸다. 20x2년 당기 비용은 12개월분인 400,000원이고, 700,000원은 20x2년 말 선급보험료이다.
③ X. '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원 증가한다'가 틀렸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100,000원 증가에서 당기 비용 400,000원을 차감하므로 기말 이익잉여금은 700,000원 증가한다.
④ X. '기말 자산항목이 400,000원 증가한다'가 틀렸다. 기말 자산으로 남는 선급보험료는 미경과 21개월분인 700,000원이므로 기말 자산은 700,000원 증가한다.
⑤ X. '기말 순자산이 300,000원 증가한다'가 틀렸다. 수정으로 인식하는 기말 선급보험료만큼 자산과 순자산이 700,000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400,000원은 20x2년의 12개월분 비용이고, 700,000원은 20x2년 말의 21개월분 선급보험료이다. 또한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액은 20x2년 말 잔액이 아니라 20x1년 말 미경과보험료 1,100,000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급비용 오류는 전체 계약기간의 월별 비용을 먼저 구한 뒤, 전기 말 미경과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액으로, 당기 경과분은 당기 비용으로, 당기 말 미경과분은 자산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기 말 미경과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 경과분은 당기 비용, 당기 말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이다.

NoteBase

문 12.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②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③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④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단영업의 정의와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현금흐름 공시, 매각예정 분류 철회 시 재분류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분단위 중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영업지역 등에 해당하거나,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단영업 관련 두 종류의 세후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합계인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그 분석 내용은 주석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중단영업에 귀속되는 영업·투자·재무활동의 순현금흐름도 주석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이다.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이미 처분된 경우뿐 아니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두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는 부분이다.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 구성 자산·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그 분석은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이다. 중단영업의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④ O
기업의 구분단위를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종전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그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계속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과거기간 금액이 재표시되었다는 사실도 기재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재측정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오답 포인트

매각예정 분류와 중단영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모든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단영업 정의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단일금액 표시'와 '세부 분석 공시', '주석 표시'와 '재무제표 본문 표시'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처분 대상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다음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두 세후 손익의 합계를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점, 세부 분석과 순현금흐름은 주석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매각예정 분류가 철회되면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영업성과를 계속영업손익으로 되돌린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중단영업은 '정의 충족', 손익은 '단일금액', 현금흐름은 '주석 또는 본문', 분류 철회는 '계속영업으로 재분류'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이 ₩840일 때,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0x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변동내용

1월 1일 기초유통보통주식수(액면금액 ₩5,000)는 1,000주이다.

4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8,500에 취득하다.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에 재발행하다.

10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20x1년 초 신주인수권 600개를 부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8,000이고, 20x1년도 보통주 가격현황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종가	1월 1일~12월 31일 평균주가	12월 31일 종가
₩7,000	₩10,000	₩12,000

① ₩840

② ₩941

③ ₩952

④ ₩966

⑤ ₩1,027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기주식 거래를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신주인수권의 희석증분주식수를 구한 뒤, 주어진 희석주당순이익에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역산하여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희석주당순이익은 840원이다. 신주인수권은 600개이고, 개당 행사가격은 8,000원, 연평균 주가는 10,000원이다. 자기주식 100주의 소각은 이미 유통주식수에서 제외된 자기주식을 없애는 거래이므로 소각 시점의 유통보통주식수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신주인수권의 희석증분주식수는 자기주식법에 따라 계산한다.
희석증분주식수=인수가능주식수×평균주가-행사가격평균주가
희석주당순이익=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증분주식수
신주인수권은 행사대금으로 평균주가에 자기주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무상으로 발행되는 효과가 있는 주식수만 분모에 더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000×(3)/(12)+800×(3)/(12)+900×(6)/(12)=900주
2. 신주인수권의 희석증분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600×10,000-8,00010,000=120주
3. 희석주당순이익의 분모는 1,020주이므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역산한다.
840원×(900+120)=856,800원
4.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한다.
856,800원900주=952원

선지 판단

① X — 840원은 문제에서 주어진 희석주당순이익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은 희석증분주식수 120주를 제외한 900주를 분모로 계산한 952원이므로, 840원은 95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계산된 기본주당순이익은 952원이므로 941원은 맞지 않는다. 941원은 95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856,800원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900주로 나누면 기본주당순이익은 952원이다.
④ X — 계산된 기본주당순이익은 952원이므로 966원은 맞지 않는다. 966원은 95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계산된 기본주당순이익은 952원이므로 1,027원은 맞지 않는다. 1,027원은 952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840원을 그대로 고르면 희석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순이익을 혼동한 것이다. 또한 10월 1일 자기주식 100주 소각을 유통주식수의 추가 감소로 처리하면 안 된다. 자기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이미 유통주식수에서 빠져 있으므로 소각 자체는 유통주식수를 바꾸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간별 유통보통주식수를 월할하여 기본 분모를 구하고, 자기주식법으로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증분주식수를 구한다. 그다음 주어진 희석주당순이익으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역산하고, 이를 기본 분모로 나누어 기본주당순이익을 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은 유통주식수를 줄이지만,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유통주식수를 다시 줄이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의 희석효과는 자기주식법상 무상발행 효과가 있는 주식 수만큼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나타난 △는 (-)유보를 나타낸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은?

◯ 20x1년도 각사업연도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70,000이며, 20x1년 중 당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3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기법인세자산 차변에 기입하였다. 나머지 ₩40,000은 20x2년 3월 말에 관련 세법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 세무조정에 따른 유보 처분액(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20x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90,000	₩18,000	₩13,000	₩85,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10,000	△60,0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30,000	1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	△5,000
합계	₩160,000	₩18,000	₩28,000	₩170,000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20x0년 말과 20x1년 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① ₩28,000
② ₩36,000
③ ₩38,000
④ ₩68,000
⑤ ₩102,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당기법인세비용에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70,000원이다.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원천징수·중간예납액 30,000원과 다음 연도에 납부할 40,000원은 납부 시기의 구분일 뿐, 당기법인세비용의 총액은 70,000원이다.
유보 합계는 기초 160,000원에서 기말 170,000원으로 10,000원 증가하였다. 양(+)의 순유보는 순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순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세율은 20%이고 실현가능성도 거의 확실하다.

사용할 공식

순이연법인세자산=순유보액×세율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비용-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
순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는 미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당기의 이연법인세수익으로 반영되므로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은 160,000 × 20% = 32,000원이다.
2.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은 170,000 × 20% = 34,000원이다.
3.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은 34,000 − 32,000 = 2,000원이므로 이연법인세수익은 2,000원이다.
4.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70,000 − 2,000 = 6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8,000원은 당기 현금 지급액 30,000원을 당기법인세비용으로 잘못 보고 이연법인세수익 2,000원을 차감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지급액이 아니라 당기 법인세부담액 70,000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68,000원이다.
② X — 36,000원은 당기법인세비용 70,000원에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 잔액 34,000원을 통째로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세비용에는 기말 잔액이 아니라 당기 증가액 2,000원만 반영하므로 올바르게는 68,000원이다.
③ X — 38,000원은 당기법인세비용 70,000원에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 32,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초 잔액이 아니라 기초와 기말의 차이 2,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68,000원이다.
④ O — 당기법인세비용 70,000원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에 따른 이연법인세수익 2,000원을 차감한 68,000원과 일치한다.
⑤ X — 102,000원은 당기법인세비용 70,000원에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 32,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 잔액을 더하지 않고 당기 증가액 2,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6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실제 지급한 30,000원을 당기법인세비용으로 보는 오류와,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초 또는 기말 잔액 전체를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오류가 핵심 함정이다. 당기손익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이 아니라 당기 증감액만 반영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확인하고, 유보의 기초·기말 합계에 세율을 적용하여 순이연법인세자산의 당기 증감액을 구한다. 순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고, 감소하면 법인세비용에 가산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세비용은 납부액이 아니라 당기 법인세부담액에서 출발하며, 이연법인세는 기말 잔액이 아니라 당기 증감액을 반영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당기순이익: ₩500,000 - 법인세비용: ₩6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9,000 - 감가상각비: ₩4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3,500 - 사채상환이익: ₩5,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구분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순액)	₩120,000	₩90,000
재고자산(순액)	80,000	97,000
매입채무	65,000	78,000
유형자산(순액)	3,000,000	2,760,000
당기법인세부채	40,000	38,000
이연법인세부채	55,000	70,000

① ₩627,500

② ₩640,500

③ ₩649,500

④ ₩687,500

⑤ ₩877,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영업 손익, 영업운전자본의 변동,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납부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을 계산한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500,000원이다.
비현금·비영업 손익은 매출채권손상차손 9,000원, 감가상각비 40,000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3,500원, 사채상환이익 5,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원이다.
매출채권(순액)은 30,000원 감소하고, 재고자산은 17,000원 증가하며, 매입채무는 13,000원 증가한다.
당기법인세부채는 40,000원에서 38,000원으로 감소하고, 이연법인세부채는 5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증가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비현금·비영업 손익 조정 + 영업운전자본 조정 + 법인세비용 - 법인세납부액이다.
순액 매출채권 감소액에 손상차손의 비현금 감소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별도로 가산할 때 매출채권의 현금 관련 감소액은 30,000원 - 9,000원 = 21,000원으로 조정한다.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과 비현금·비영업 손익을 조정하면 500,000원 + 9,000원 + 40,000원 + 3,500원 - 5,000원 + 50,000원 = 597,500원이다.
2. 영업운전자본 조정액은 매출채권 감소 21,000원 - 재고자산 증가 17,000원 + 매입채무 증가 13,000원 = 17,000원이다.
3. 이연법인세부채가 15,000원 증가했으므로 이연법인세비용은 15,000원이고, 당기법인세비용은 60,000원 - 15,000원 = 45,000원이다. 법인세납부액은 기초 당기법인세부채 40,000원 + 당기법인세비용 45,000원 - 기말 당기법인세부채 38,000원 = 47,000원이다.
4.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597,500원 + 17,000원 + 60,000원 - 47,000원 = 627,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영업활동순현금흐름 627,500원과 일치한다.
② X — 640,5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40,500원은 627,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649,5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49,500원은 627,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687,5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87,500원은 627,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877,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77,000원은 627,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매출채권(순액)의 30,000원 감소를 전액 가산하면서 손상차손 9,000원도 다시 가산하면 같은 비현금 감소분을 이중 반영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비용 60,000원을 실제 납부액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15,000원을 분리하여 당기법인세비용 45,000원과 법인세납부액 47,000원을 차례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접법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현금·비영업 손익, 영업운전자본, 법인세 순서로 조정한다. 순액 계정의 손상차손이 별도로 주어지면 자산 증감액과 손상차손이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순액 매출채권 변동과 손상차손은 중복을 제거하고, 법인세는 비용을 더한 뒤 실제 납부액을 뺀다.

NoteBase

문 16.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④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주요 이용자, 그리고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목적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이다. 감독당국 등 다른 당사자도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요 이용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을 위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기업가치를 직접 제시하거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추정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감독당국 등 기타 당사자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유용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만으로 주요 이용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② O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제공할 수도 없다. 이용자는 일반 경제 상황, 정치적 사건, 산업 및 기업 전망 등 다른 원천의 관련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O — 재무보고는 경제현상을 완전히 정확하게 그대로 옮긴 결과가 아니라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④ O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 주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다만 주요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⑤ O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지분상품·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와 대여 및 기타 신용의 제공 또는 결제가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보고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와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주요 이용자'를 같은 범위로 본 것이 함정이다. 감독당국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 감독당국이 주요 이용자가 되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목적재무보고 문항에서는 먼저 주요 이용자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로 한정한다. 이어서 재무보고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가치를 직접 산정하는 보고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가치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요 이용자는 투자자·대여자·기타 채권자이고, 재무보고는 기업가치 자체가 아니라 기업가치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x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구분	20×1년 4월 1일	20×1년 6월 1일	20×2년 2월 1일
공사대금 지출액	₩2,000,000	₩4,800,000	₩900,000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4. 1.	₩1,000,000	20×2. 9. 30.	5%
일반차입금	20×1. 1. 1.	₩1,500,000	20×3. 12. 31.	8%
일반차입금	20×1. 3. 1.	₩1,800,000	20×2. 12. 31.	12%

① ₩300,000

② ₩325,000

③ ₩337,500

④ ₩380,000

⑤ ₩5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을 구한 뒤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구분하여 20×1년 자본화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자본화 기간은 공장건물 신축과 특정차입이 시작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다.
공사대금 지출액은 4월 1일 2,000,000원, 6월 1일 4,800,000원이며, 20×2년 2월 1일 지출액은 20×1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특정차입금은 1,000,000원, 연 5%이고, 일반차입금은 1월 1일의 1,500,000원·연 8%와 3월 1일의 1,800,000원·연 12%이다.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평균지출액은 각 지출액에 자본화 기간의 월수를 12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이자비용을 기간가중 차입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액은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되, 해당 기간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 과정

1. 20×1년 연평균지출액은 $2{,}000{,}000 \times \frac{9}{12} + 4{,}800{,}000 \times \frac{7}{12} = 4{,}300{,}000$원이다.
2. 특정차입금 차입원가는 $1{,}000{,}000 \times 5\% \times \frac{9}{12} = 37{,}500$원이다. 특정차입금이 담당하는 기간가중 지출액은 $1{,}000{,}000 \times \frac{9}{12} = 750{,}000$원이다.
3. 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이자비용은 $1{,}500{,}000 \times 8\% + 1{,}800{,}000 \times 12\% \times \frac{10}{12} = 300{,}000$원이고, 기간가중 차입금액은 $1{,}500{,}000 + 1{,}800{,}000 \times \frac{10}{12} = 3{,}000{,}000$원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frac{300{,}000}{3{,}000{,}000} = 10\%$이다.
4.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 연평균지출액은 $4{,}300{,}000 - 750{,}000 = 3{,}550{,}000$원이고, 산식상 자본화액은 $3{,}550{,}000 \times 10\% = 355{,}0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300,000원이므로 자본화액은 300,000원으로 제한된다.
5.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37{,}500 + 300{,}000 = 337{,}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0,000'은 일반차입금에서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만 반영하고 특정차입금의 20×1년 차입원가 37,5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총액은 ₩337,500이다.
② X — '₩325,000'은 특정차입금의 자본화 기간을 6개월로 잘못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다. 특정차입금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자본화하므로 올바른 총액은 ₩337,500이다.
③ O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37,500원과 실제 이자비용 한도가 적용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300,000원을 합하면 ₩337,500이다.
④ X — '₩380,000'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적용 및 실제 이자비용 한도를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총액은 ₩337,500이다.
⑤ X — '₩550,000'은 계산된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37,500원과 일반차입금 자본화 한도 300,000원의 합계가 아니다. 올바른 총액은 ₩337,5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특정차입금 원금 1,000,000원을 연평균지출액에서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기간 9개월을 반영한 750,000원을 빼는 점과, 일반차입금 산식상 금액 355,000원이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300,000원을 초과하므로 300,000원으로 제한하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출액과 차입금에 월할 비율을 적용하고, 특정차입금 관련 금액을 분리한 다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계산하고, 일반차입금은 기간가중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되 실제 발생 이자비용을 한도로 한다.

NoteBase

문 18. (주)세무는 20x1년 말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0)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x2년 7월 1일부터 동 건물 전부를 본사사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x2년 7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동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 현황이다. 20x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750,000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세무의 20x2년 당기순이익은?

구분	20×1년 12월 31일	20×2년 7월 1일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00,000	₩1,200,000	₩1,000,000

① ₩550,000

② ₩610,000

③ ₩670,000

④ ₩750,000

⑤ ₩916,66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날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삼고, 재평가일 직전 장부금액과 재평가액의 차이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전환일인 20×2년 7월 1일의 공정가치 1,200,000원이 유형자산의 간주원가가 된다. 전환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0원이므로, 20×2년 하반기 6개월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20×2년 말 재평가액은 1,000,000원이며, 원가모형 적용 시 당기순이익은 75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간주원가를 C, 잔존가치를 S, 잔존내용연수를 n이라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D = (C - S) \div n$이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연간 감가상각비에 사용월수 6/12를 곱한다. 재평가감소액은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금액이다. 원가모형 당기순이익에는 같은 기간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평가모형 당기순이익은 원가모형 당기순이익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평가손실만 차감하여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2년 7월 1일 간주원가는 전환일 공정가치인 1,200,000원이다.
2. 6개월분 감가상각비는 (1,200,000 − 0) ÷ 10 × 6/12 = 60,000이므로 60,000원이다.
3.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200,000 − 60,000 = 1,140,000이므로 1,140,000원이다.
4. 20×2년 말 재평가액이 1,000,000원이므로 재평가감소액은 1,140,000 − 1,000,000 = 140,000이므로 140,000원이다. 이 감소액과 상계할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5. 재평가모형의 당기순이익은 750,000 − 140,000 = 610,000이므로 61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5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전환일부터 연말까지의 공정가치 하락액 200,000원을 원가모형 당기순이익에서 그대로 차감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140,000원과 재평가액 1,000,000원의 차이인 140,000원만 추가 차감하여 610,000원이다.
② O — 750,000원에서 재평가손실 140,000원을 차감하면 610,000원이므로 옳다.
③ X — 67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재평가감소액은 80,000원이 아니라 140,000원이다.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610,000원이다.
④ X — 750,000원은 재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원가모형의 당기순이익이다. 올바르게는 재평가손실 140,000원을 추가 차감하여 610,000원이다.
⑤ X — 916,667원은 재평가감소를 이익에 더한 결과로 볼 수 있어 계산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재평가감소액 140,000원이 당기손실이므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6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1,200,000원에서 연말 공정가치 1,000,000원을 바로 빼는 것이다. 재평가감소액은 전환일 공정가치가 아니라 6개월분 감가상각을 반영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1,14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원가모형 당기순이익 750,000원에는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환일 공정가치로 간주원가 확정 → 전환 후 감가상각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계산 → 기말 공정가치와 비교 → 재평가손익 반영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일 공정가치는 간주원가이고, 기말 재평가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NoteBase

문 1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②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내부창출 지출, 비한정 내용연수의 재검토와 손상검사에 관한 회계처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시점 이후의 지출만 자산화할 수 있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지만 매 회계기간 내용연수 평가를 재검토하고 손상검사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피취득자의 종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에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② O —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은 이후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이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손상징후에 해당하므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④ O — 비한정 내용연수의 정당성을 매 회계기간 재검토하며,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아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O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항목의 지출은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원가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내용연수 변경 자체와 손상차손의 즉시 인식을 혼동하게 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의 변경은 손상징후이므로 손상검사가 필요하지만, 손상차손은 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으로 바뀌면 먼저 회계추정 변경으로 전진 적용하고, 동시에 손상징후로 보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징후가 있다는 사실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결론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비한정→유한은 '추정 변경 + 손상징후'이고,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일 때 인식한다.

NoteBase

문 20. (주)세무의 20x1년 중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용 및 주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거래로 인한 (주)세무의 20x1년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당기 자본 증가금액은?

◯ 주식기준보상 A

20x1년 4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1인당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x1년 말 기준 예상 가득인원은 90명이다.

◯ 주식기준보상 B

20x1년 8월 1일 (주)대한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주식 200주를 지급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주식기준보상 C

20x1년 11월 1일 (주)민국이 2개월 이내에 원재료 1톤을 공급하면 주식 30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주)민국은 11월 1일에 공정가치 ₩80,000의 원재료 0.7톤을 공급하였으며, 12월 1일에 공정가치 ₩50,000의 원재료 0.3톤을 공급하여 주식 300주를 수취하였다.

일자	1주당 주가	일자	1주당 주가
4월 1일	₩300	12월 1일	₩420
8월 1일	320	12월 31일	450
11월 1일	400		

① ₩589,000

② ₩590,800

③ ₩599,000

④ ₩791,500

⑤ ₩801,5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종업원과의 주식결제형 거래는 부여일 주가로 측정하고, 재화 제공자와의 거래는 제공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를 우선 사용하여 당기 자본 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A: 종업원 90명에게 1인당 20주를 지급하며, 12개월의 가득기간 중 20x1년에 9개월이 경과하였다. 부여일인 4월 1일 주가는 1주당 ₩300이다.
B: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8월 1일의 주가 ₩320으로 주식 200주를 측정한다.
C: 원재료의 공정가치가 직접 주어졌으므로 11월 1일의 ₩80,000과 12월 1일의 ₩50,000을 합산한다.
구해야 할 값은 세 거래에서 인식하는 자본 증가액의 합계이며, 이에 대응하는 당기 비용의 손익 효과는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A의 자본 증가액은 예상 가득인원 × 1인당 주식 수 × 부여일 주가 × 가득기간 경과비율로 계산한다. 가득기간 경과비율은 $\frac{9}{12}$이다.
B의 자본 증가액은 취득 주식 수 × 재화 취득일의 주가로 계산한다.
C의 자본 증가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된 원재료 공정가치의 합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A는 종업원 용역의 대가인 주식결제형 거래이므로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기간에 배분하고, B와 C는 비종업원에게서 재화를 취득한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정가치를 우선하되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B만 제공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A: 예상 가득 주식 수는 90명 × 20주 = 1,800주이다. 총 보상원가는 1,800주 × ₩300 = ₩540,000이고, 그중 9개월분인 $\frac{9}{12}$을 인식하므로 자본 증가액은 ₩405,000이다.
2. B: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 주가를 적용한다. 200주 × ₩320 = ₩64,000이다.
3. C: 공급받은 원재료의 공정가치를 합산하면 ₩80,000 + ₩50,000 = ₩130,000이다.
4.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자본 증가액은 ₩405,000 + ₩64,000 + ₩130,000 = ₩599,0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89,000은 A ₩405,000과 B ₩64,000에 C를 원재료 공정가치가 아니라 11월 1일 주가로 일괄 측정한 ₩120,000을 더한 값이다. C는 원재료 공정가치 ₩130,000으로 측정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99,000이다.
② X — ₩590,800은 C의 300주를 공급 비율 70%와 30%로 나누어 각 공급일 주가로 측정한 ₩121,800을 사용한 값이다. C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 원재료 공정가치 ₩80,000과 ₩50,000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99,000이다.
③ O — A ₩405,000, B ₩64,000, C ₩130,000의 합계가 ₩599,000이므로 옳다.
④ X — ₩791,500은 A를 부여일 주가가 아닌 12월 31일 주가로 재측정하여 ₩607,500으로 계산하고, C도 11월 1일 주가로 잘못 측정한 결과이다. A는 ₩405,000, C는 ₩130,000으로 측정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99,000이다.
⑤ X — ₩801,500은 A를 12월 31일 주가 ₩450으로 재측정하여 ₩607,500으로 계산한 값이다. 주식결제형 종업원 거래인 A는 부여일 주가 ₩300을 고정하여 적용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99,0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모든 거래에 결산일 주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A는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기간에 배분하고 이후 주가 변동으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B와 C는 재화의 공정가치를 우선 사용하되, 재화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B에만 재화 취득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지 비종업원인지 구분한다. 종업원과의 주식결제형 거래는 부여일 공정가치와 가득기간을 적용한다. 비종업원에게서 재화를 취득하면 재화의 공정가치를 우선 적용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만 제공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종업원은 부여일 공정가치, 비종업원 재화는 재화 공정가치 우선, 재화 공정가치 측정 불가 시 지분상품 공정가치이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3년 만기 회사채A(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4%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8%)를 20x1년 1월 1일 1매당 공정가치 ₩896,884에 발행하였다. 동 일자에 (주)세무가 발행한 회사채A를 공정가치로 1매씩 매입한 회사들의 매입 및 분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1년 12월 31일 회사채A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때,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이 큰 회사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모든 회사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며, 회사채A 관련 회계 처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제외할 때 회사채A를 매입한 세 회사의 총포괄이익은 같다.)

구분	계정분류	매입수수료	회사채A 처분일
(주)대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0	-
(주)민국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0	20×3년 9월 17일
(주)한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0	20×2년 1월 10일

① (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

② (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

③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④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

⑤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거래원가와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방식을 구분하여 총포괄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간 표시이자는 액면금액 1,000,000원에 표시이자율 4%를 적용한 40,000원이다.
20x1년 중 회사채 공정가치 상승액은 1,000,000원 - 896,884원 = 103,116원이다.
(주)대한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주)민국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한국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용할 원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당기비용이 된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수익만 총포괄이익에 반영하지만, 나머지 두 분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위치가 다를 뿐 총포괄이익에는 공정가치 상승 효과까지 반영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주)대한: 최초 장부금액은 896,884원 + 1,200원 = 898,084원이다. 거래원가를 포함한 현금흐름으로 다시 산정한 유효이자율은 약 7.9512%이므로 20x1년 이자수익, 즉 총포괄이익 증가액은 약 71,408원이다.
2. (주)민국: 총포괄이익 증가액은 보유기간의 이자수취액과 공정가치 상승액에서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된 거래원가를 차감한 40,000원 + 103,116원 - 1,200원 = 141,916원이다. 이 금액은 당기손익의 유효이자수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나뉜다.
3. (주)한국: 거래원가 900원은 즉시 비용 처리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총포괄이익 증가액은 40,000원 + 103,116원 - 900원 = 142,216원이다.

따라서 (주)한국 142,216원 > (주)민국 141,916원 > (주)대한 약 71,408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은 반대이다. 올바른 순서는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이다.
② X — '(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은 (주)한국을 가장 작게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른 순서는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이다.
③ X —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은 (주)민국과 (주)한국의 순서가 바뀌었다. (주)한국의 거래원가 900원이 (주)민국의 1,200원보다 300원 작으므로 올바른 순서는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이다.
④ O — (주)한국 142,216원, (주)민국 141,916원, (주)대한 약 71,408원이므로 제시된 순서가 맞다.
⑤ X — '(주)민국 = (주)한국'이 틀렸다. 두 회사의 총포괄이익 차이는 거래원가 차이 300원이며, 올바르게는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이다.

오답 포인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의 표시 위치가 다르지만, 총포괄이익을 비교할 때에는 모두 포함한다. 두 회사의 순서를 가르는 것은 처분일이 아니라 매입수수료 1,200원과 900원의 차이이다. 처분일은 모두 20x1년 말 이후이므로 20x1년도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분류별 거래원가의 처리와 공정가치 변동의 반영 위치를 확인한다. 그다음 당기손익만이 아니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친 총포괄이익을 비교하고, 보고기간 후의 처분일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 처리한다. 총포괄이익 비교에서는 기타포괄손익도 빠뜨리지 않는다.

NoteBase

문 22. (주)세무는 (주)대한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만기 4년인 회사채를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세무는 20x1년 말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50,000으로 추정하였다. 20x2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x2년 말 현재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700,000으로 추정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시장이자율은 각각 10%와 12%이며, 회사채 취득 시 손상은 없다.)

◯ 발행일: 20x1년 1월 1일
◯ 액면금액: ₩1,000,000
◯ 이자지급: 액면금액의 4%를 매년 말에 후급
◯ 만기 및 상환방법: 20x4년 12월 31일에 전액 일시 상환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8%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년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년	0.8573	0.8264	0.7972	1.7833	1.7355	1.6901
3년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년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3

① 20x1년: ₩19,399 증가 / 20x2년: ₩206,773 감소
② 20x1년: ₩19,399 증가 / 20x2년: ₩216,913 감소
③ 20x1년: ₩19,399 증가 / 20x2년: ₩248,843 감소
④ 20x1년: ₩31,834 증가 / 20x2년: ₩206,773 감소
⑤ 20x1년: ₩31,834 증가 / 20x2년: ₩248,843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여 연도별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이자수익은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유효이자율 8%를 적용한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원, 매년 말 이자는 40,000원, 만기는 4년, 최초 유효이자율은 8%이다.
20x1년 말에는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므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20x2년 말에는 신용이 손상되었고, 남은 현금흐름은 2년 뒤 만기 원금 700,000원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취득원가 =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원금의 현재가치
이자수익 = 기초 총장부금액 × 최초 유효이자율
기말 총장부금액 = 기초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수익 - 현금수취액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추정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최초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와 계약상 현금흐름을 연결하는 수익률이므로, 이후 시장이자율 10%와 12%가 아니라 8%를 계속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취득원가는 $40,000 \times 3.3121 + 1,000,000 \times 0.7350 = 867,484$원이다.
2. 20x1년 이자수익은 $867,484 \times 8\% = 69,399$원이고, 기대신용손실 5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69,399 - 50,000 = 19,399$원 증가한다. 20x1년 말 총장부금액은 $867,484 + 69,399 - 40,000 = 896,883$원이다.
3. 신용손상은 20x2년 말에 발생했으므로 20x2년 이자수익은 기초 총장부금액을 기준으로 $896,883 \times 8\% = 71,751$원이다. 현금이자 40,000원을 수취한 뒤 총장부금액은 $896,883 + 71,751 - 40,000 = 928,634$원이다.
4. 20x2년 말 예상 회수액의 현재가치는 $700,000 \times 0.8573 = 600,110$원이고, 필요한 손실충당금은 $928,634 - 600,110 = 328,524$원이다. 기존 손실충당금 50,000원이 있으므로 20x2년 추가 손상차손은 $328,524 - 50,000 = 278,524$원이다.
5. 따라서 20x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71,751 - 278,524 = -206,773$원, 즉 206,773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가 20x1년 19,399원 증가, 20x2년 206,773원 감소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 20x2년의 216,913원 감소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자수익 71,751원에서 추가 손상차손 278,524원을 차감한 206,773원 감소이다.
③ X — 20x2년의 248,843원 감소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2년 말 필요한 손실충당금 328,524원 중 전기에 이미 인식한 50,000원을 제외하여 당기 손상차손을 278,524원으로 계산하고, 이자수익까지 반영한 206,773원 감소이다.
④ X — 20x1년의 31,834원 증가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 69,399원에서 기대신용손실 50,000원을 차감한 19,399원 증가이다.
⑤ X — 두 연도의 금액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1년 19,399원 증가, 20x2년 206,773원 감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0x1년 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와 20x2년 말 신용손상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20x2년 손상차손은 기말 손실충당금 328,524원 전액이 아니라 전기 충당금 50,000원을 뺀 증가액 278,524원이다. 제시된 시장이자율 10%와 12%는 할인율 함정이며 최초 유효이자율 8%를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최초 유효이자율로 취득원가와 연도별 총장부금액을 계산한다. 그다음 예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필요한 기말 손실충당금을 구하고, 전기 손실충당금과의 차이를 당기 손상차손으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합산하여 당기순이익 영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산하고, 당기 손상차손은 기말 필요충당금에서 전기 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23.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주)세무는 20x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① ₩190,906

② ₩286,359

③ ₩334,086

④ ₩381,812

⑤ ₩429,539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기상환으로 제거되는 사채의 비율을 파악한 뒤, 남은 사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발행금액은 875,645원, 액면금액은 1,000,000원, 표시이자율은 5%,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x1년 말 이자비용은 87,565원이고 현금이자는 50,000원이므로, 조기상환 직전 사채 장부금액은 913,210원이다. 조기상환한 부분은 약 70%이므로 30%가 남는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기말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액면금액×표시이자율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인식하고, 실제 지급한 표시이자를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갱신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전체 사채 장부금액은 875,645원 + 875,645원 × 10% - 50,000원 = 913,210원이다.
2. 상환대가 637,000원에 사채상환이익 2,184원을 더한 제거 장부금액은 639,184원으로, 전체 장부금액의 약 70%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은 사채는 30%이다.
3. 조기상환이 없다고 가정한 20x2년 말 전체 사채 장부금액은 913,210원 + 913,210원 × 10% - 50,000원 = 954,531원이다.
4. 실제로 남은 30%의 장부금액은 954,531원 × 30% = 286,359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90,906원은 전체 20x2년 말 장부금액 954,531원의 20%를 남은 것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잔존 비율은 30%이므로 286,359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20x2년 말 전체 사채 장부금액 954,531원에 실제 잔존 비율 30%를 곱하면 286,359원이 된다.
③ X — 334,086원은 잔존 비율을 35%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잔존 비율 30%를 적용한 286,359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381,812원은 잔존 비율을 40%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잔존 비율 30%를 적용한 286,359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429,539원은 잔존 비율을 45%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잔존 비율 30%를 적용한 286,359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사채상환이익 2,184원은 상환대가에서 차감하는 값이 아니라 제거한 사채의 장부금액이 상환대가보다 큰 금액이다. 따라서 제거 장부금액은 637,000원 + 2,184원으로 파악하며, 조기상환 후에는 남은 30%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과 현금이자를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부 조기상환 문제는 상환손익으로 제거 장부금액을 구하고, 제거 비율과 잔존 비율을 확정한 다음, 잔존 부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환이익 = 제거 장부금액 - 상환대가이며, 일부 상환 뒤의 이자비용과 현금이자는 남은 비율만큼만 인식한다.

NoteBase

문 24. 20x0년 1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리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서버(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고정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지급을 시작하여 매년 ₩500,000씩 총 3회 지급한다. 리스계약에 따라 (주)세무는 연장선택권(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산의 소유권도 리스이용자에게 귀속)을 20x3년 12월 31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리스료 ₩300,000은 20x4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주)세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 20x1년 1월 1일 기초자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가 인도되어 사용 개시되었으며, (주)세무는 리스개설과 관련된 법률비용 ₩30,000을 동 일자에 지출하였다.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이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다. 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091	0.9091
2년	0.8264	1.7355
3년	0.7513	2.4869
4년	0.6830	3.1699

① ₩408,263

② ₩433,942

③ ₩437,942

④ ₩457,263

⑤ ₩481,04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리스에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액을 구하고, 20x1년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리스개시일은 20x1년 1월 1일이고, 고정리스료 500,000원은 개시일부터 매년 총 3회 지급한다. 따라서 첫 500,000원은 개시일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두 번은 각각 1년 후와 2년 후에 지급한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므로 3년 후 지급할 연장기간 리스료 300,000원도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한다.
연장선택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 4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 상각한다.
개시일의 법률비용 30,000원은 최초직접원가로서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리스부채 = 개시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사용권자산 원가 = 최초 리스부채 + 개시일까지 지급한 리스료 + 최초직접원가
20x1년 이자비용 = 최초 리스부채 × 10%
20x1년 사용권자산 상각비 = 사용권자산 원가 ÷ 내용연수 5년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첫 리스료가 개시일에 지급되어 사용권자산 원가에는 포함되지만, 지급 직후의 리스부채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최초 리스부채는 다음과 같다.
500,000×0.9091+500,000×0.8264+300,000×0.7513=1,093,140원
2. 사용권자산 원가는 다음과 같다.
1,093,140+500,000+30,000=1,623,140원
3. 20x1년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1,093,140×10\%=109,314원
4.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x1년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1,623,140÷5=324,628원
5. 두 비용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109,314+324,628=433,942원

선지 판단

① X — 408,263원은 계산된 비용 합계 433,942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을 433,94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이자비용 109,314원과 사용권자산 상각비 324,628원의 합계가 433,942원이므로 옳다.
③ X — 437,942원은 계산된 비용 합계보다 4,000원 크다. 금액을 433,94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457,263원은 계산된 비용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을 433,94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481,047원은 계산된 비용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을 433,942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개시일에 즉시 지급한 첫 리스료 500,000원을 리스부채 현재가치에 다시 포함하면 안 된다. 반면 이 금액은 사용권자산 원가에는 포함된다. 또한 연장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므로 연장기간 리스료 300,000원을 누락하면 안 되며,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각기간은 리스기간 4년이 아니라 내용연수 5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 확인하여 리스기간과 리스료 범위를 정한다. 다음으로 개시일 즉시 지급액과 이후 지급액을 구분해 리스부채를 측정하고, 선급 리스료와 최초직접원가를 더해 사용권자산 원가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상각기간을 결정한 뒤 이자비용과 상각비를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개시일 지급액은 리스부채에서는 제외하고 사용권자산에는 포함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상각한다.

NoteBase

문 25.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옳은 것은?

①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⑤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의 증거인지, 보고기간말 후 새로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정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므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비수정 사건은 보고기간말 후 새로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인식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비수정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의 추정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고기간 후 확정된 소송 결과가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현재의무를 확인해 주므로 수정 사건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관련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 인식한다.

② X
보고기간 후 입수한 정보가 보고기간말에 이미 발생한 자산손상이나 기존 손상차손 금액의 오류를 확인해 주므로 수정 사건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 금액을 수정한다.

③ X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으로 이미 이익분배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었고, 보고기간 후에는 그 금액만 확정되었으므로 수정 사건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확정된 정보에 따라 관련 부채와 비용을 수정한다.

④ O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므로 비수정 사건이다. 따라서 인식 금액은 수정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면 필요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⑤ X
보고기간말 전에 매입하거나 매각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대가를 보고기간 후 결정한 것은 보고기간말 현재 거래 금액에 관한 추가 증거이므로 수정 사건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확정된 취득원가나 매각대가에 따라 인식 금액을 수정한다.

오답 포인트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었다'는 시점만 보고 모두 비수정 사건으로 판단하기 쉽다. 핵심은 확정 시점이 아니라 그 사건이 증명하는 상황의 발생 시점이다. ①·②·③·⑤는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을 확인하지만, ④의 공정가치 하락은 보고기간말 후 새로 발생한 상황을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고기간 후 얻은 정보가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의무·손상·거래금액을 확인하면 수정 사건으로 판단한다. 보고기간말 후의 새로운 시장상황이나 사건을 반영하면 비수정 사건으로 판단하고, 중요성에 따라 주석 공시 여부를 검토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말에 원인이 이미 존재하면 수정, 기말 후 원인이 새로 생기면 비수정이다. 중요한 비수정 사건은 금액 수정이 아니라 주석 공시 대상이다.

NoteBase

문 26. (주)세무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며 당기 중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이다. 기초원가(prime cost)는 ₩306,000이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의 5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주)세무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잔액	기말잔액
원재료	₩27,000	₩9,000
재공품	30,000	15,000
제 품	35,000	28,000

① 당기제품제조원가: ₩408,500 / 매출원가: ₩511,000

② 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 매출원가: ₩511,000

③ 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 매출원가: ₩526,000

④ 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 매출원가: ₩526,000

⑤ 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 매출원가: ₩533,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를 차례로 조정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원재료: 기초 27,000원, 당기 매입 83,000원, 기말 9,000원
재공품: 기초 30,000원, 기말 15,000원
제품: 기초 35,000원, 기말 28,000원
기초원가: 306,000원
제조간접원가: 전환원가의 50%

NoteBase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원가=기초 원재료+매입액-기말 원재료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 재공품+당기 총제조원가-기말 재공품
매출원가=기초 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 제품
원재료의 투입액은 직접재료원가이고, 재공품 재고 조정으로 완성품 원가를 구한 다음 제품 재고 조정으로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구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는 27,000원 + 83,000원 - 9,000원 = 101,000원이다.
2. 직접노무원가는 306,000원 - 101,000원 = 205,000원이다.
3. 제조간접원가가 전환원가의 50%이면 직접노무원가도 나머지 5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205,000원이다. 따라서 전환원가는 410,000원이다.
4. 당기 총제조원가는 101,000원 + 205,000원 + 205,000원 = 511,000원이다.
5. 당기제품제조원가는 30,000원 + 511,000원 - 15,000원 = 526,000원이다.
6. 매출원가는 35,000원 + 526,000원 - 28,000원 = 533,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당기제품제조원가 408,500원 / 매출원가 511,000원'은 모두 틀리다. 408,500원은 직접노무원가 205,000원을 전환원가로 오인하고 그 50%인 102,500원만 제조간접원가로 더할 때 생길 수 있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원, 매출원가 533,000원이다.
② X — '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원'은 당기 총제조원가에 기초·기말 재공품을 조정하지 않은 값이고, '매출원가 511,000원'도 제품 재고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각각 526,000원과 533,000원이다.
③ X — '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원'은 재공품 조정 전의 당기 총제조원가이고, '매출원가 526,000원'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그대로 매출원가로 본 값이다. 올바르게는 각각 526,000원과 533,000원이다.
④ X — '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원'은 맞지만, '매출원가 526,000원'은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 차이 7,000원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매출원가는 533,000원이다.
⑤ O — 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원에 기초 제품 35,000원을 더하고 기말 제품 28,0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533,000원이 된다. 두 금액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205,000원을 전환원가로 착각하는 것과 511,000원을 곧바로 당기제품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다. 205,000원은 직접노무원가이고, 제조간접원가가 전환원가의 5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도 205,000원이다. 또한 511,000원은 재고 조정 전의 당기 총제조원가이므로 재공품과 제품의 재고를 순서대로 조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재료 계정으로 직접재료원가를 구하고, 기초원가로 직접노무원가를 역산한 뒤 전환원가의 구성비로 제조간접원가를 구한다. 이후 '원재료 → 재공품 → 제품'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에서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당기 총제조원가에 재공품 재고를 조정하면 당기제품제조원가, 여기에 제품 재고를 조정하면 매출원가가 된다.

NoteBase

문 27. 다음은 (주)세무의 당기 및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할 때 (주)세무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	당기말 잔액		전기말 잔액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공장관리비	₩250,000	₩150,000	–	₩25,000	–
수도광열비	300,000	–	₩100,000	25,000	–
복리후생비	150,000	–	100,000	–	₩35,000

① ₩615,000

② ₩735,000

③ ₩765,000

④ ₩965,000

⑤ ₩1,06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금 지급액을 발생주의에 맞게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의 기초·기말 잔액으로 조정하여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공장관리비: 지급액 250,000원, 기말 선급비용 150,000원, 기초 미지급비용 25,000원이다.
수도광열비: 지급액 300,000원, 기말 미지급비용 100,000원, 기초 미지급비용 25,000원이다.
복리후생비: 지급액 150,000원, 기말 미지급비용 100,000원, 기초 선급비용 35,000원이다.
표의 '-'는 해당 잔액이 없다는 뜻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 발생액=당기 지급액+기말 미지급비용-기초 미지급비용-기말 선급비용+기초 선급비용
기말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더하고, 기초 미지급비용은 전기에 이미 발생하여 당기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뺀다. 기말 선급비용은 아직 당기 비용이 아니므로 빼고, 기초 선급비용 중 당기에 비용화된 금액은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공장관리비 발생액은 250,000원 - 25,000원 - 150,000원 = 75,000원이다.
2. 수도광열비 발생액은 300,000원 + 100,000원 - 25,000원 = 375,000원이다.
3.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150,000원 + 100,000원 + 35,000원 = 285,000원이다.
4.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75,000원 + 375,000원 + 285,000원 = 73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615,000원은 계산 결과 73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615,000'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금액은 735,000원이다.
② O — 세 비용의 발생액 합계가 735,000원이므로 '₩735,000'이 맞다.
③ X — 765,000원은 계산 결과보다 30,000원 크다. '₩765,000'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금액은 735,000원이다.
④ X — 965,000원은 발생주의 조정을 반영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965,000'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금액은 735,000원이다.
⑤ X — 1,065,000원은 발생주의 조정을 반영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1,065,000'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금액은 73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기 쉽다. 특히 기초 미지급비용은 당기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 비용이므로 차감하고, 기말 선급비용은 당기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차기 비용이므로 차감한다. 반대로 기말 미지급비용과 기초 선급비용은 당기 비용에 가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비용별로 '지급액 + 기말 미지급 - 기초 미지급 - 기말 선급 + 기초 선급'을 적용한 뒤 각 발생액을 합산한다. 지급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귀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호를 정한다.

암기 포인트

미지급은 기말 가산·기초 차감, 선급은 기말 차감·기초 가산이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87,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47,000단위이다. 또한 전환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35,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25,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① 10%

② 20%

③ 25%

④ 75%

⑤ 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평균법 완성품환산량과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원가요소의 완성품환산량이다. 재료원가의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한 뒤, 전환원가의 차이를 그 수량으로 나누어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는 100%이다.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 평균법 87,000단위, 선입선출법 47,0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평균법 35,000단위, 선입선출법 25,000단위
구해야 할 값은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이다.

사용할 공식

평균법 환산량-FIFO 환산량=기초재공품 수량×기초 완성도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수행된 작업도 당기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하지만,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추가로 수행한 작업만 포함한다. 따라서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가 기초재공품의 전기 말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수량은 다음과 같다.
87,000-47,000=40,000단위
2. 전환원가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전환원가 환산량이다.
35,000-25,000=10,000단위
3.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다음과 같다.
$\frac{10,000}{40,000} \times 100 = 25\%$

선지 판단

① X — 10%가 아니라, 전환원가 환산량 차이 10,000단위를 기초재공품 40,000단위로 나눈 25%이다.
② X — 20%가 아니라 25%이다. 분모는 선입선출법의 재료원가 환산량 47,000단위가 아니라 두 재료원가 환산량의 차이인 40,000단위이다.
③ O — 10,000 ÷ 40,000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25%이다.
④ X — 75%는 기초재공품에 남아 있던 전환원가 작업 비율이다. 문제에서 묻는 기초 완성도는 25%이다.
⑤ X — 80%가 아니라 25%이다. 전환원가 환산량 차이 10,000단위와 기초재공품 수량 40,000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75%는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전환원가 비율이다. 문제는 당기 추가 작업률이 아니라 기초재공품의 기초 시점 완성도를 묻고 있으므로 25%를 선택한다. 또한 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환산량 차이를 곧바로 같은 비율로 보지 않고, 먼저 재료원가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원가요소의 평균법 환산량과 FIFO 환산량의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한다. 그다음 구하려는 원가요소의 환산량 차이를 기초재공품 수량으로 나누면 해당 원가요소의 기초 완성도가 된다.

암기 포인트

평균법 환산량과 FIFO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에 이미 들어 있던 완성분이다. 공정 초 전량 투입 재료의 차이는 기초재공품 수량, 전환원가의 차이는 기초재공품 수량과 기초 완성도의 곱이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판매관리비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초에 수집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당기 중 주요 고객인 홍길동이 30회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길동의 주문 1회당 예상되는 (주)세무의 평균 매출액은 ₩25,000이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분하는 경우, (주)세무가 당기에 홍길동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3,000,000(급여 ₩2,000,000, 기타 ₩1,00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40%	60%	100%
기타	20%	80%	100%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2,00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100명

① ₩255,000

② ₩265,000

③ ₩275,000

④ ₩279,500

⑤ ₩50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원원가를 활동별로 배부한 뒤 활동원가율을 구하고, 특정 고객이 소비한 활동량만큼 판매관리비를 배부하여 고객별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연간 판매관리비: 급여 2,000,000원, 기타 1,000,000원
급여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40%, 고객관계관리 60%
기타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20%, 고객관계관리 80%
연간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2,000회, 고객관계관리 100명
홍길동의 예상 주문: 30회
주문 1회당 매출액: 25,000원
매출원가율: 매출액의 60%

사용할 공식

활동원가율=활동원가원가동인 총량
고객별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고객에게 배부된 판매관리비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각 활동에 집계된 원가를 그 활동의 원가동인으로 나누고, 고객이 실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량을 곱하여 고객별 원가를 배부한다.

계산 과정

1. 고객주문처리 활동원가 = 2,000,000원 × 40% + 1,000,000원 × 20% = 1,000,000원이다. 따라서 주문 1회당 활동원가는 1,000,000원 ÷ 2,000회 = 500원이다.
2. 고객관계관리 활동원가 = 2,000,000원 × 60% + 1,000,000원 × 80% = 2,000,000원이다. 따라서 고객 1명당 활동원가는 2,000,000원 ÷ 100명 = 20,000원이다.
3. 홍길동에게 배부되는 판매관리비 = 500원 × 30회 + 20,000원 × 1명 = 35,000원이다.
4. 홍길동의 예상 매출액 = 25,000원 × 30회 = 750,000원이고, 예상 매출원가 = 750,000원 × 60% = 450,000원이다.
5. 예상 영업이익 = 750,000원 - 450,000원 - 35,000원 = 26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55,000원은 계산된 영업이익 26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매출총이익 300,000원에서 홍길동에게 배부된 판매관리비 35,000원을 차감한 265,000원이다.
② O — 매출액 750,000원에서 매출원가 450,000원과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따른 판매관리비 35,000원을 차감하면 265,000원이다.
③ X — 275,000원은 계산된 영업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고객주문처리원가 15,000원과 고객관계관리원가 20,000원을 모두 차감하여 265,000원으로 계산한다.
④ X — 279,500원은 주문처리원가를 주문 1회분인 500원만 반영할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홍길동의 주문 30회를 반영하여 주문처리원가 15,000원을 배부하므로 영업이익은 265,000원이다.
⑤ X — 505,000원은 매출원가와 고객별 판매관리비를 정확히 차감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 450,000원과 판매관리비 35,000원을 차감하여 265,000원으로 계산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객주문처리원가는 주문횟수 30회를 곱하지만, 고객관계관리원가는 고객 1명분만 배부한다. 특히 ④는 주문처리 활동원가율 500원을 구한 뒤 이를 30회가 아니라 1회만 반영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원원가의 활동별 배부 → 활동원가율 계산 → 고객의 활동소비량 적용 →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산 → 고객별 판매관리비 차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활동원가율은 활동원가를 총활동량으로 나눈 값이며, 고객별 원가는 활동원가율에 그 고객의 활동소비량을 곱한 값이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결합공정에서 제품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8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 과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	₩20	3,000단위	₩10,000	₩23
B	30	2,000단위	15,000	40
C	40	2,000단위	15,000	50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결합제품의 추가가공 여부는 추가가공으로 늘어나는 수익과 추가가공원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B·C의 분리점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이다.
구해야 할 값: 제품별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의 차이이다.
주의할 조건: 결합원가 80,000원은 분리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공통원가이므로 추가가공 여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므로 가격 상승분에 전체 생산량을 곱한다.

사용할 공식

증분수익=(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분리점 단위당 판매가격)×생산량
증분이익=증분수익-추가가공원가
증분이익이 양수이면 추가가공하고, 음수이면 분리점에서 판매한다. 추가가공 여부는 미래에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비교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 증분수익은 (23원-20원)×3,000단위=9,000원이고 추가가공원가는 10,000원이므로 증분이익은 -1,000원이다. 따라서 A는 추가가공하지 않는다.
B: 증분수익은 (40원-30원)×2,000단위=20,000원이고 추가가공원가는 15,000원이므로 증분이익은 5,000원이다. 따라서 B는 추가가공한다.
C: 증분수익은 (50원-40원)×2,000단위=20,000원이고 추가가공원가는 15,000원이므로 증분이익은 5,000원이다. 따라서 C는 추가가공한다.

선지 판단

① X — A의 증분이익은 -1,000원이므로 A를 추가가공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B와 C를 추가가공한다.
② X — B는 추가가공하지만 A는 추가가공하지 않으며 C는 추가가공한다. 올바르게는 B와 C이다.
③ X — C는 추가가공하지만 A는 추가가공하지 않고 B는 추가가공한다. 올바르게는 B와 C이다.
④ O — B와 C는 각각 5,000원의 증분이익이 발생하고 A는 1,000원의 증분손실이 발생하므로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B와 C이다.
⑤ X — A까지 모두 추가가공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A를 제외한 B와 C만 추가가공한다.

오답 포인트

결합원가 80,000원의 배분액을 추가가공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것이 함정이다. 결합원가는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이미 발생한 원가이므로 무시한다. 또한 단위당 판매가격 증가분만 비교하지 않고, 반드시 생산량을 곱한 총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를 비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리점 이후의 의사결정에서는 분리점 이전 원가를 제외하고, 제품별로 '단위당 가격 상승분×판매량-추가가공원가'를 계산한다. 그 결과가 양수인 제품만 추가가공한다.

암기 포인트

추가가공 판단은 결합원가가 아니라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의 비교이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225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당기 예상 판매량은 2,000단위부터 6,0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당기 총고정원가가 ₩630,000일 때 ₩120,0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확률은?

① 25%

② 45%

③ 55%

④ 60%

⑤ 7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헌이익률로 판매가격과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 구간이 전체 균등분포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단위당 변동원가 225원, 공헌이익률 40%, 총고정원가 630,000원, 목표이익 120,000원, 예상 판매량 2,000단위 이상 6,000단위 이하이다.
구해야 할 값: 이익이 120,000원 이상일 확률이다.
주의할 조건: 판매량이 2,000단위부터 6,0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하므로 확률은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의 길이를 전체 구간의 길이로 나누어 구한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률은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판매가격이다.
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Q-총고정원가이다.
균등분포에서 목표이익 달성 확률은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 구간의 길이전체 판매량 구간의 길이이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중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 창출에 쓰이는 공헌이익의 비율이므로, 이를 이용해 단위당 공헌이익을 먼저 산출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가격을 P라 하면 $\frac{P-225}{P}=0.4$이므로 $P=375$원이다.
2. 단위당 공헌이익은 $375-225=150$원이다.
3. 판매량을 Q라 하면 목표이익 조건은 $150Q-630{,}000\geq 120{,}000$이다. 따라서 $150Q\geq 750{,}000$, 즉 $Q\geq 5{,}000$단위이다.
4. 전체 판매량 구간의 길이는 $6{,}000-2{,}000=4{,}000$단위이고,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구간의 길이는 $6{,}000-5{,}000=1{,}000$단위이다.
5. 따라서 확률은 $\frac{1{,}000}{4{,}000}=0.25=25\%$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가 25%이므로 옳다.
② X — 45%는 전체 구간 4,000단위 중 목표이익 달성 구간 1,000단위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45%가 아니라 25%가 옳다.
③ X — 55%는 $\frac{1{,}000}{4{,}000}$의 값이 아니다. 55%가 아니라 25%가 옳다.
④ X — 60%는 목표이익 달성 판매량인 5,000단위 이상 구간의 확률이 아니다. 60%가 아니라 25%가 옳다.
⑤ X — 75%는 전체 판매량 구간에서 5,000단위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75%가 아니라 25%가 옳다.

오답 포인트

공헌이익률 40%를 단위당 공헌이익 40원으로 보거나, 5,000단위라는 임계판매량을 구한 뒤 $\frac{5{,}000-2{,}000}{6{,}000-2{,}000}=75\%$로 계산하면 ⑤를 고르게 된다. 문제는 5,000단위 미만이 아니라 5,000단위 이상일 확률을 묻고 있으므로 상단 구간인 5,000단위부터 6,000단위까지를 분자로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헌이익률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고, 목표이익식으로 임계판매량을 계산한 다음, 균등분포의 전체 구간 중 임계판매량 이상 구간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이익 달성 판매량은 고정원가+목표이익단위당 공헌이익이고, 균등분포의 확률은 해당 구간의 길이를 전체 구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32. (주)세무의 기초 제품수량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500단위, 기말 제품수량은 1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300이며,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	₩250,000
직접노무원가	8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60,000
변동판매관리비	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고정판매관리비	15,000

① ₩13,000

② ₩23,000

③ ₩33,000

④ ₩43,000

⑤ ₩53,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조건 정리

생산량은 500단위이고 기말제품은 100단위이므로 판매량은 400단위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1,300원이다.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50,000원, 직접노무원가 8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60,000원의 합계이고, 변동판매관리비는 40,000원이다.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영업이익=매출액-변동매출원가-변동판매관리비-고정제조간접원가-고정판매관리비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재고에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지 않으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원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차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량: $500 - 100 = 400$단위
2. 매출액: $400 \times 1,300 = 520,000$원
3.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frac{250,000 + 80,000 + 160,000}{500} = 980$원
4. 변동매출원가: $400 \times 980 = 392,000$원
5. 공헌이익: $520,000 - 392,000 - 40,000 = 88,000$원
6. 영업이익: $88,000 - 40,000 - 15,000 = 33,000$원

선지 판단

① X — 13,000원은 계산된 영업이익 33,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3,000원이다.
② X — 23,000원은 매출액 520,000원에서 변동매출원가 392,000원, 변동판매관리비 40,000원 및 고정원가 합계 55,000원을 차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3,000원이다.
③ O —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영업이익은
$520,000 - 392,000 - 40,000 - 40,000 - 15,000 = 33,000$원이므로 맞다.
④ X — 43,000원은 계산된 영업이익보다 10,000원 크다. 주어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모두 반영하면 올바르게는 33,000원이다.
⑤ X — 53,000원은 계산된 영업이익보다 20,000원 크다.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을 모두 당기 비용으로 차감하면 올바르게는 3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제품 100단위 때문에 고정제조간접원가 일부도 재고에 남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그것은 전부원가계산의 처리이며,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생산량 500단위가 아니라 판매량 400단위에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량에서 기말제품수량을 빼 판매량을 구한다. 이어서 변동제조원가 합계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계산하고, 판매량에 대응하는 변동매출원가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변동판매관리비와 모든 고정원가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 재고화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에 판매한다. 연간 생산가능 수량 2,000단위에 근거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위 원가 항목 중 제품수준 활동원가와 설비수준 활동원가는 고정원가로, 나머지는 변동원가로 가정한다. 총고정원가 중 ₩10,00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세후순이익 ₩16,000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직접재료원가	₩10
직접노무원가	15
단위수준 활동원가	25
제품수준 활동원가	14
설비수준 활동원가	6
	₩70

① 460단위

② 520단위

③ 550단위

④ 600단위

⑤ 625단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활동수준별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 손금불산입 고정원가의 세효과를 반영하여 목표 세후순이익에 필요한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원이다. 직접재료원가 10원, 직접노무원가 15원, 단위수준 활동원가 25원은 변동원가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는 50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원이다. 제품수준 활동원가와 설비수준 활동원가는 고정원가이므로 연간 총고정원가는 $(14 + 6) \times 2{,}000 = 40{,}000$원이다. 이 중 10,000원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회계상 세전이익에 가산한다.

사용할 공식

판매량을 Q, 회계상 세전이익을 P라고 하면 $P = 100Q - 40{,}000$이다. 손금불산입액이 10,0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P - 0.2(P + 10{,}000)$이다. 손금불산입액은 회계상 비용에는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목표 세전이익을 구한다.
$16{,}000 = P - 0.2(P + 10{,}000) = 0.8P - 2{,}000$
따라서 $P = 22{,}500$원이다.
2. 목표 세전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을 구한다.
$100Q - 40{,}000 = 22{,}500$
$Q = 625$
따라서 필요한 판매량은 625단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460단위를 판매하면 세전이익은 6,000원이고, 과세소득 16,000원에 대한 법인세는 3,2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2,800원이다. 460단위가 아니라 625단위가 되어야 한다.
② X — 520단위를 판매하면 세전이익은 12,000원이고, 과세소득 22,000원에 대한 법인세는 4,4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7,600원이다. 520단위가 아니라 625단위가 되어야 한다.
③ X — 550단위를 판매하면 세전이익은 15,000원이고, 과세소득 25,000원에 대한 법인세는 5,0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10,000원이다. 550단위가 아니라 625단위가 되어야 한다.
④ X — 600단위를 판매하면 세전이익은 20,000원이고, 과세소득 30,000원에 대한 법인세는 6,0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14,000원이다. 600단위가 아니라 625단위가 되어야 한다.
⑤ O — 625단위를 판매하면 세전이익은 22,500원이고, 과세소득 32,500원에 대한 법인세는 6,500원이므로 세후순이익은 16,000원이 된다.

오답 포인트

제품수준 활동원가 14원과 설비수준 활동원가 6원은 문제에서 고정원가로 가정했으므로 2,000단위를 곱해 총고정원가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손금불산입 10,000원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세후 목표이익을 단순히 세율로 역산하면 필요한 판매량을 잘못 구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활동수준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손금불산입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목표 세전이익을 구하고, 마지막에 목표이익 판매량 공식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손금불산입액은 회계상 이익에는 다시 더하지 않지만, 과세소득에는 가산한다. 목표 판매량은 (총고정원가+목표세전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한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제품A는 ₩200, 제품B는 ₩150이며, 공헌이익률은 제품A는 40%, 제품B는 5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수량배합은 1:2로 일정하고, 당기 총고정원가는 ₩34,500이다. 당기 이익 ₩23,000을 얻기 위한 총매출액은?

① ₩120,000

② ₩125,000

③ ₩128,000

④ ₩132,000

⑤ ₩13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수량배합이 일정한 복수제품의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구한 뒤, 목표이익 달성에 필요한 총매출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A: 단위당 판매가격 ₩200, 공헌이익률 40%
제품B: 단위당 판매가격 ₩150, 공헌이익률 50%
매출수량배합: 제품A 1개 : 제품B 2개
총고정원가: ₩34,500
목표이익: ₩23,000
구해야 할 값: 목표이익 달성에 필요한 총매출액

NoteBase

사용할 공식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 × 공헌이익률이다.

복합제품 1묶음의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복합제품 1묶음의 공헌이익)/(복합제품 1묶음의 매출액)
이다.

목표이익 달성 매출액은
(고정원가+목표이익)/(가중평균 공헌이익률)
이다.

매출수량배합이 1:2로 일정하므로 제품A 1개와 제품B 2개를 하나의 복합제품 묶음으로 보아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제품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 × 40% = ₩80이다.
2. 제품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50 × 50% = ₩75이다.
3. 제품A 1개와 제품B 2개로 구성된 복합제품 1묶음의 매출액은 ₩200 + ₩150 × 2 = ₩500이다.
4. 복합제품 1묶음의 공헌이익은 ₩80 + ₩75 × 2 = ₩230이다.
5.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230/₩500 = 46%이다.
6.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필요 공헌이익은 ₩34, 500 + ₩23, 000 = ₩57, 500이다.
7. 목표이익 달성에 필요한 총매출액은 ₩57, 500/46% = ₩125, 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20,000은 계산 결과 ₩125,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20,000은 올바르게는 ₩125,000이다.
② O —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46%로 ₩57,500의 공헌이익을 확보하려면 총매출액은 ₩125,000이다.
③ X — ₩128,000은 계산 결과 ₩125,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28,000은 올바르게는 ₩125,000이다.
④ X — ₩132,000은 계산 결과 ₩125,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32,000은 올바르게는 ₩125,000이다.
⑤ X — ₩138,000은 계산 결과 ₩125,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38,000은 올바르게는 ₩125,0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품별 공헌이익률 40%와 50%를 단순평균하여 45%로 계산하면 안 된다. 매출수량배합이 1:2이므로 복합제품 묶음의 매출액과 공헌이익을 먼저 구해야 하며, 목표이익 매출액의 분자에는 고정원가뿐 아니라 목표이익도 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수제품의 수량배합이 일정하면 배합대로 복합제품 1묶음을 만든다. 그 묶음의 총공헌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구하고, 고정원가+목표이익을 그 비율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수량배합 문제는 '복합제품 1묶음 →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 목표이익 매출액'의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실제 제품 생산량이 2,0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 : $3kg \times ₩10/kg = ₩30$
·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 : ₩12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 ₩12,6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 ₩4,000(유리)

① $300kg$
② $400kg$
③ $500kg$
④ $600kg$
⑤ $700kg$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직접재료 가격차이로 실제 구입량을, 능률차이로 실제 사용량을 역산한 뒤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단위당 표준투입량은 $3kg$, 직접재료의 표준가격은 $₩10/kg$, 실제가격은 $₩12/kg$이다. 실제 생산량이 2,000단위이므로 허용표준수량은 $2,000 \times 3 = 6,000kg$이다. 당기에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 직접재료 재고는 없다.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 가격차이:
실제 구입량×(실제가격-표준가격)
직접재료 능률차이:
표준가격×(실제 사용량-허용표준수량)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
기초 재고량+실제 구입량-실제 사용량
가격차이는 구입한 수량과 실제·표준가격의 차이로 발생하고, 능률차이는 생산에 실제로 사용한 수량과 허용표준수량의 차이로 발생하므로 각각의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가격차이 12,600원(불리)은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2/kg 높아서 발생했다. 따라서 실제 구입량은 $12{,}600 \div 2 = 6{,}300kg$이다.
2. 능률차이 4,000원(유리)은 실제 사용량이 허용표준수량보다 적다는 뜻이다. 수량 차이는 $4{,}000 \div 10 = 400kg$이므로 실제 사용량은 $6{,}000 - 400 = 5{,}600kg$이다.
3. 기초 재고가 없으므로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은 $0 + 6{,}300 - 5{,}600 = 700kg$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0kg$은 계산된 기말 재고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700kg$이다.
② X — $400kg$은 능률차이에서 역산한 실제 사용량의 절감분일 뿐 기말 재고량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700kg$이다.
③ X — $500kg$은 구입량 6,300 kg과 사용량 5,600 kg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700kg$이다.
④ X — $600kg$은 계산된 구입량과 사용량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700kg$이다.
⑤ O — 실제 구입량 $6{,}300kg$에서 실제 사용량 $5{,}600kg$을 빼면 기말 재고량은 $700kg$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차이는 실제 구입량을, 능률차이는 실제 사용량을 구하는 데 이용한다. 특히 4,000원(유리)을 실제 사용량에 더하면 안 된다. 유리한 능률차이는 실제 사용량이 허용표준수량보다 $400kg$ 적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차이에서 구입량, 능률차이에서 사용량을 차례로 역산한 뒤 재고식인 기초 재고량＋구입량－사용량을 적용한다. 유리·불리 표시는 수량을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가격차이→구입량, 능률차이→사용량, 재고량→기초＋구입－사용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실제 제품 생산량 : 700단위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작업시간 : 2시간
·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 ₩12,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2,000(불리)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4,000(유리)

① 600
② 800
③ 1,000
④ 1,200
⑤ 1,4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로 예산액을 구하고, 조업도차이로 배부액과 표준배부율을 역산한 뒤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생산량은 70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작업시간은 2시간이므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기계작업시간은 1,400시간이다.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2,000원이고 예산차이는 2,000원 불리이다.
조업도차이는 4,000원 유리이다.
구해야 할 값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이다.

사용할 공식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 배부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 고정제조간접원가 =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기계작업시간 × 표준배부율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 × 표준배부율

예산차이는 실제액과 예산액의 차이이고, 조업도차이는 예산액과 실제 생산량에 배부된 금액의 차이이므로 이 관계를 차례로 이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예산차이가 2,000원 불리이므로 실제액이 예산액보다 2,000원 많다. 따라서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2,000원 - 2,000원 = 10,000원이다.
2.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기계작업시간은 700단위 × 2시간 = 1,400시간이다.
3. 조업도차이가 4,000원 유리이므로 배부액이 예산액보다 4,000원 많다. 따라서 배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원 + 4,000원 = 14,000원이다.
4. 표준배부율은 14,000원 ÷ 1,400시간 = 시간당 10원이다.
5.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10,000원 ÷ 시간당 10원 = 1,000시간이다.

선지 판단

① X — 600시간은 계산된 기준조업도 1,000시간과 다르다. '600'은 '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800시간은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원을 시간당 표준배부율 10원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800'은 '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10,000원 ÷ 시간당 10원 = 1,000시간이다.
④ X — 1,200시간은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12,000원을 표준배부율로 나눈 값일 뿐,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조업도가 아니다. '1,200'은 '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400시간은 실제 생산량 700단위에 허용된 표준기계작업시간이지 기준조업도가 아니다. '1,400'은 '1,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불리'는 실제액이 예산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예산액을 구할 때 실제액에서 예산차이를 뺀다. 반대로 조업도차이가 '유리'이면 배부액이 예산액보다 크므로 배부액을 구할 때 예산액에 조업도차이를 더한다. 또한 1,400시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이며, 문제에서 묻는 기준조업도 시간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산차이로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먼저 구하고, 조업도차이로 배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다. 이어서 실제 생산량의 표준시간으로 표준배부율을 계산한 뒤, 예산액을 표준배부율로 나누어 기준조업도 시간을 산정한다.

암기 포인트

예산차이는 '실제액 대 예산액', 조업도차이는 '예산액 대 배부액'의 비교이다. 기준조업도 시간은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 표준배부율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의 최대생산능력은 5,000개이다. 정규시장에 1개당 ₩200에 4,000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50개씩 묶음(batch) 생산하며, 4,000개를 생산하는 경우 원가는 다음과 같다. 1개당 ₩130에 1,5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개씩 묶음 생산하며, 특별주문은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24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80,000
고정원가	400,000
	₩720,000

① ₩75,000 증가

② ₩30,000 증가

③ ₩20,000 증가

④ ₩20,000 감소

⑤ ₩75,000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할 때 특별주문의 증분손익, 정규판매 감소의 기회원가, 묶음 수 변화에 따른 변동원가를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생산·판매량은 4,000개이고 최대생산능력은 5,000개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000개이다. 특별주문 1,500개를 전량 수락하면 정규판매 500개를 포기해야 한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개당 60원(240,000원 ÷ 4,000개)이다. 묶음 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묶음당 1,000원[80,000원 ÷ (4,000개 ÷ 50개)]이다. 고정원가 400,000원은 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으므로 증분손익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Delta \pi$ = 특별주문으로 얻는 공헌이익 -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공헌이익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특별주문 1,500개 중 1,000개만 유휴생산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고, 나머지 500개 때문에 정규판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특별주문 매출액은 130원 × 1,500개 = 195,000원이다.
2. 특별주문의 생산량 변동원가는 60원 × 1,500개 = 90,000원이다.
3. 특별주문은 100개씩 생산하므로 15묶음이고, 묶음 수 변동원가는 1,000원 × 15묶음 = 15,000원이다.
따라서 특별주문 자체의 공헌이익은 195,000원 - 90,000원 - 15,000원 = 90,000원이다.
4. 정규판매 1개의 공헌이익은 판매가 200원 - 생산량 변동원가 60원 - 묶음 수 변동원가 20원(1,000원 ÷ 50개) = 120원이다. 포기하는 정규판매 500개의 공헌이익은 120원 × 500개 = 60,000원이다.
5. 순증분이익은 90,000원 - 60,000원 = 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75,000원 증가’는 특별주문 자체의 공헌이익과 정규판매 500개를 포기하는 기회원가를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30,000원 증가이다.
② O — 특별주문의 공헌이익 90,000원에서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공헌이익 60,000원을 빼면 이익이 30,000원 증가한다.
③ X — ‘20,000원 증가’는 묶음당 변동원가와 정규판매 감소의 기회원가를 반영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0,000원 증가이다.
④ X — ‘20,000원 감소’가 아니다. 특별주문 수락 후에도 순증분이익이 양수이므로 올바르게는 30,000원 증가이다.
⑤ X — ‘75,000원 감소’가 아니다. 특별주문 공헌이익이 포기하는 정규판매 공헌이익보다 30,000원 크므로 올바르게는 30,000원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특별주문 1,500개 전부가 유휴생산능력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정규판매 500개의 기회원가를 누락한다. 또한 묶음 크기가 정규시장 50개와 특별주문 100개로 다르므로, 묶음 수 변동원가를 단순한 동일 개당 원가로 처리하면 안 된다.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관련원가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에서는 먼저 유휴생산능력을 확인하고, 초과 물량이 있으면 포기하는 정상판매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차감한다. 원가동인이 생산량인지 묶음 수인지 구분하여 각각의 증분원가를 계산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원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증분손익 = 특별주문 공헌이익 - 포기한 정상판매 공헌이익이다. 묶음 크기가 바뀌면 묶음 수 원가를 다시 계산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원가 중 예방원가(prevention cost)와 평가원가(appraisal cost)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활동	원가(또는 비용)
원재료 검사	₩40
반품 재작업	10
재공품 검사	50
납품업체 평가	90
공손품 재작업	10

활동	원가(또는 비용)
설계엔지니어링	₩20
보증수리원가	70
예방적 설비유지	30
반품 재검사	20
품질교육훈련	60

①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 더 크다.

②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크다.

③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50 더 작다.

④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70 더 작다.

⑤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작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품질관리 활동을 예방원가·평가원가·내부실패원가·외부실패원가로 구분한 뒤 예방원가와 평가원가의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방원가는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품질 문제를 막기 위한 원가이다. 납품업체 평가 90원, 설계엔지니어링 20원, 예방적 설비유지 30원, 품질교육훈련 60원이 해당한다.
평가원가는 제품이나 원재료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원가이다. 원재료 검사 40원과 재공품 검사 50원이 해당한다.
반품 재작업·반품 재검사는 고객에게 인도된 뒤 발생한 외부실패원가이고, 공손품 재작업은 출하 전에 발견된 내부실패원가이며, 보증수리원가는 외부실패원가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차이=예방원가-평가원가
예방 활동과 검사 활동을 먼저 분류하여 각각 합산한 뒤 두 합계의 크기를 비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예방원가는 90 + 20 + 30 + 60 = 200원이다.
2. 평가원가는 40 + 50 = 90원이다.
3. 차이는 200 − 90 = 110원이므로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원 더 크다.

선지 판단

① O — 예방원가 200원에서 평가원가 90원을 빼면 110원이므로 옳다.
② X — '90원 더 크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원 더 크다.
③ X — '50원 더 작다'가 틀렸다. 예방원가는 더 작은 것이 아니라 110원 더 크다.
④ X — '70원 더 작다'가 틀렸다. 예방원가는 더 작은 것이 아니라 110원 더 크다.
⑤ X — '90원 더 작다'가 틀렸다. 예방원가는 더 작은 것이 아니라 110원 더 크다.

오답 포인트

활동명에 '검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반품 재검사 20원을 평가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반품은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뒤의 실패이므로 반품 재검사는 외부실패원가이다. 또한 납품업체 평가는 불량 원재료의 유입을 사전에 막는 활동이므로 예방원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량 발생 전 예방 활동은 예방원가, 적합 여부 확인은 평가원가, 출하 전 발견된 불량 처리는 내부실패원가, 출하 후 고객 단계에서 발생한 처리는 외부실패원가로 분류한 뒤 필요한 항목만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예방은 불량 방지, 평가는 검사, 내부실패는 출하 전 불량, 외부실패는 출하 후 불량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20,000이며,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일 때 교정비용은 ₩30,000이다.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90,000이 발생한다. 공정이 정상일 확률은 60%, 비정상일 확률은 40%이다. 공정 상태에 대해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그 완전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가능한 최대금액은?

① ₩4,000

② ₩12,000

③ ₩16,000

④ ₩20,000

⑤ ₩32,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 차이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정상 확률은 60%, 비정상 확률은 40%이다.
조사하면 조사비용 20,000원이 항상 발생하고, 비정상이면 교정비용 30,000원이 추가된다.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이 비정상이면 9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완전정보가 주어져도 조사·교정이라는 실행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할 공식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EVPI=완전정보가 없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
비용 문제이므로 각 상황에서 기대비용이 더 작은 대안을 선택한 뒤 두 최소 기대비용의 차이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완전정보가 없을 때 조사하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20,000원 + 40% × 30,000원 = 32,000원이다.
2. 조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40% × 90,000원 = 36,000원이다. 따라서 완전정보가 없을 때는 조사하며, 최소 기대비용은 32,000원이다.
3. 완전정보가 있으면 정상일 때는 조사하지 않아 비용이 0원이고, 비정상일 때는 조사 후 교정하여 20,000원 + 30,000원 = 50,000원을 부담한다. 이는 조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90,000원의 손실보다 작다.
4.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은 60% × 0원 + 40% × 50,000원 = 20,000원이다.
5. 따라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32,000원 - 20,000원 = 12,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000원은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12,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4,000'은 '₩12,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완전정보로 줄일 수 있는 최소 기대비용은 32,000원 - 20,000원 = 12,000원이므로 최대 지불가능액은 ₩12,000이다.
③ X — 16,000원은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12,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16,000'은 '₩12,0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20,000원은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이지 완전정보의 가치가 아니다. '₩20,000'은 '₩12,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32,000원은 완전정보가 없을 때 선택하는 조사 대안의 기대비용이지 완전정보의 가치가 아니다. '₩32,000'은 '₩12,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기대비용 20,000원이나 완전정보가 없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 32,000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최대 지불가능액은 두 비용의 차이인 12,000원이다. 또한 완전정보는 공정 상태를 미리 알려 줄 뿐, 비정상 상태에서 필요한 조사비와 교정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형 완전정보 문제는 먼저 정보가 없을 때 각 대안의 기대비용 중 최솟값을 구하고, 다음으로 완전정보가 있을 때 상태별 최소비용의 기대값을 구한 뒤, 앞의 값에서 뒤의 값을 뺀다.

암기 포인트

비용 문제의 EVPI는 '정보 없음의 최소 기대비용 - 완전정보의 최소 기대비용'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으로 지정된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고, B사업부는 부품을 추가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이다. A사업부는 부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20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3,000단위 판매하거나 단위당 판매가격을 ₩18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4,000단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A사업부가 외부시장에서 2가지 판매가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사업부가 A사업부에게 부품 2,0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A사업부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① ₩80

② ₩100

③ ₩110

④ ₩120

⑤ ₩1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내부대체 전의 최적 이익을 보전하려면 최소대체가격에 변동원가뿐 아니라 내부대체로 잃는 기회이익도 포함해야 한다.

조건 정리

A사업부의 최대생산능력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이다. 내부대체가 없을 때 외부판매 대안은 단가 ₩200·3,000단위 또는 단가 ₩180·4,000단위이다. B사업부에 2,000단위를 전량 대체하면 외부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생산능력은 3,000단위가 된다.

사용할 공식

$T_{min} = V + O$

T_{min}은 단위당 최소대체가격, V는 단위당 변동원가, O는 단위당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내부대체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최선의 외부판매 공헌이익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내부대체 전 단가 ₩200 대안의 공헌이익은 (₩200 - ₩100) × 3,000단위 = ₩300,000이다.
2. 내부대체 전 단가 ₩180 대안의 공헌이익은 (₩180 - ₩100) × 4,000단위 = ₩320,000이므로, 내부대체 전 최선의 공헌이익은 ₩320,000이다.
3. 2,000단위를 내부대체하면 외부판매 가능 수량은 3,000단위이다. 단가 ₩200으로 3,000단위를 판매할 때의 공헌이익 ₩300,000이 단가 ₩180으로 3,000단위를 판매할 때의 ₩240,000보다 크다.
4. 내부대체로 감소하는 외부판매 공헌이익은 ₩320,000 - ₩300,000 = ₩20,000이다. 따라서 내부대체품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20,000 ÷ 2,000단위 = ₩10이다.
5.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00 + ₩10 = ₩110이다.

선지 판단

① X — ₩80은 단가 ₩180으로 외부판매할 때의 단위당 공헌이익일 뿐 최소대체가격이 아니다. ₩80이 아니라 변동원가 ₩100과 단위당 기회비용 ₩10을 합한 ₩110이 맞다.
② X — ₩100은 단위당 변동원가만 반영하여 내부대체로 잃는 공헌이익 ₩20,000을 누락한 값이다.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1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단위당 변동원가 ₩100에 단위당 기회비용 ₩10을 더하면 최소대체가격은 ₩110이다.
④ X — ₩120은 내부대체로 인한 기회비용을 과대계상한 값이다. 실제 기회비용은 총 ₩20,000, 단위당 ₩10이므로 ₩11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80은 가능한 외부판매가격 중 하나이지 최소대체가격이 아니다. 내부대체 후에도 단가 ₩200으로 3,000단위를 외부판매할 수 있으므로 최소대체가격은 ₩110이다.

오답 포인트

내부대체 전에는 단가가 높은 ₩200 대안이 아니라 총공헌이익이 더 큰 ₩180·4,000단위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2,000단위를 내부대체한 뒤에는 외부판매 가능 수량이 3,000단위로 줄어 단가 ₩200 대안이 유리해진다. 내부대체 전후에 동일한 외부판매 대안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회비용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부대체 전 가능한 대안별 총공헌이익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내부대체 후 남은 생산능력에서 다시 최적 외부판매 대안을 선택한다. 두 최적 공헌이익의 차이를 내부대체수량으로 나눈 값이 단위당 기회비용이며, 여기에 단위당 변동원가를 더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대체가격 = 추가 변동원가 + 포기한 최선 대안의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NoteBase